

보도자료
본 자료는 6월 25일(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사 및 온라인은 24일(월) 15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거시] 동향·통계분석본부 홍성욱 연구위원 (044) 287-3192
[산업]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이임자 연구위원 (044) 287-3108

2019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2019. 6.

차례

< 요약 >	i
I. 거시경제 전망	1
1. 국내 실물경제 동향	1
2. 대외여건 전망	3
3. 2019년 국내경제 전망	11
II. 13대 주력산업 전망	26
1. 2019년 상반기 동향	26
2. 2019년 하반기 주요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33
3. 2019년 하반기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40
4. 정책적 시사점	51

| 요약 |

I. 거시경제 전망

□ 현 경기 판단 : 수출 및 투자 감소세 · 소비 부진 등으로 현저히 약화

- 국내 실물경기는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심화되면서 완연한 하락세
- 내수는 민간소비가 실질총소득(GDI)의 감소 영향으로 올 1분기에 증가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설비투자도 미·중 무역분쟁 지속과 세계경기 둔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감소세가 확대
- 수출은 수출물량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수출단가도 반도체 가격의 낙폭 확대와 유가 하락 전환 등의 영향으로 떨어지면서 부진

□ 세계경제 : 연간 성장률 전년대비 하락 예상

- 2019년 세계경제는 선진권의 성장 둔화와 개도권의 성장 약화 등으로 전년보다 낮은 성장률이 예상
- 미국은 현재의 금리동결 기조가 유지되지만, 그간 내수 지지를 견인해 온 감세 정책의 효과가 점차 약해지면서 내수의 점진적 둔화 예상
- 일본과 유로권은 대내외 여건의 약세 영향으로 전년 수준의 제한적인 성장세가 예상되고, 중국경제도 미국과의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연간 성장률이 6%대 초반 수준으로 하락 전망

□ 유가 및 환율 : 유가 소폭 하락, 환율 상승 예상

-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반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기 둔화로 원유 수요가 억제됨에 따라 상승

폭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4.7% 하락한 배럴당 약 66달러 수준이 예상

- 원/달러 환율은 미·중 무역분쟁, 국내 경제지표 부진 등이 원화 가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 보다 약간 더 높아짐에 따라 연평균 기준으로 약 1,150원대가 예상

□ 2019년 국내 경제성장 : 연간 성장률 2.4% 전망

- 2019년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여파에 따른 수출 부진과 투자 감소, 소비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18년보다 낮은 2.4%의 성장률이 예상
-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상저하고의 성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여부, 중국경제 성장세, 글로벌 건축기조의 완화 가능성, 유가 및 환율 등 국제가격지표 변동성 확대 여부 등이,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주요 업종들의 수출여건 개선 여부 및 반도체 경기, 소비심리 개선과 추경의 조기 집행 여부 등이 주요 변수

□ 민간소비 : 연 2%대 중반의 증가 예상

- 소비는 정부의 가계소득 안정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중심 고용증대와 소비심리 약세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증가율 하락 예상

□ 투자 : 설비투자 6.0% 감소, 건설투자 3.3% 감소 전망

- 설비투자는 올 상반기 대폭적인 감소의 영향으로 연간 전체로는 감소폭 확대가 예상되고, 건설투자는 SOC 예산 증대와 공공부문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수출입 : 하반기에도 수출 부진 지속으로 연간 무역흑자 축소 전망

- 2019년 수출은 하반기에 반도체의 가격하락세 둔화 등으로 감소폭이 둔화될 전망이다이나,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연간 수출은 2018년 대비 5.9% 감소 예상
- 수입은 국내 경기둔화와 반도체 수출 부진 등에 따른 설비투자 감소로 자본재 등에서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나, 하반기에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연간 전체로는 1.5% 감소 전망
- 수입보다 수출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8년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 억 달러

	2018년			2019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2.8	2.5	2.7	2.0	2.7	2.4
민간소비	3.2	2.4	2.8	2.1	2.6	2.4
건설투자	-0.7	-7.2	-4.3	-6.4	-0.2	-3.3
설비투자	3.0	-7.4	-2.4	-13.6	1.7	-6.0
통관 수출 (억달러, %)	2,967 (6.3)	3,082 (4.6)	6,049 (5.4)	2,744 (-7.5)	2,948 (-4.3)	5,692 (-5.9)
통관 수입 (억달러, %)	2,656 (13.4)	2,696 (10.6)	5,352 (11.9)	2,559 (-3.6)	2,712 (0.6)	5,271 (-1.5)
무역수지	311	386	697	185	236	421

자료 : 산업연구원.

II. 13대 주력산업 전망

1. 2019년 하반기 주요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 하반기 미·중 통상분쟁 지속,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수출단가 인하,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수출여건 악화 지속

- **(미·중 통상분쟁)** 미·중 통상분쟁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 중국 화웨이 사태로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IT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섬유, 음식료는 경기 둔화 및 수요 위축에 따른 간접적인 파급효과 예상
- 반도체는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시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주요 수요산업의 위축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회복이 부진할 전망
- 중국의 첨단제품 및 서버업체들과 글로벌 데이터센터의 투자가 지연되어 반도체 경기회복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 또한, 화웨이는 SK하이닉스 매출의 12%, 삼성전자 매출의 3%를 차지하는 대형 수요기업으로, 화웨이 사태가 본격화될 경우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 악영향 예상
- 미국 제재로 마이크론이 화웨이에 D램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우리 기업 제품에 대한 대체효과도 일부 기대되나, 화웨이의 생산 축소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
- 디스플레이의 경우 최대 수출국인 중국 IT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시 부품인 디스플레이의 수요 감소가 예상되며, 중국내 애플의 점유율 감소는 국내 디스플레이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다만 미국의 화웨이 규제는 단기적으로 화웨이 스마트폰 수요 둔화와 국내 하이엔드급 스마트폰의 판매 증대로 이어지면서 국내 OLED 수요 확대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 통신기기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지속시, 국내산업에 긍정 및 부정적 영향이 상존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반사이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
 - (긍정적 영향) 미국의 제재¹⁾로 화웨이는 자사 스마트폰 개발 및 생산 차질로 주요 시장에서 입지가 약화되는 반면, 삼성, LG전자, 애플, 샤오미 등 경쟁업체들은 반사이익 기대, 화웨이의 5G 통신장비의 세계 시장 지출 제약으로 삼성전자 등 국내업체의 시장 확대 기회
 - (부정적 영향)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 스마트폰의 글로벌 입지가 축소되고 중국내 애플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될 경우, 규모는 작지만 화웨이와 애플향 국내부품 수출감소 전망

○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소비재를 포함한 최종재 수요 부진 및 소재부품 수요의 동반 위축으로 이어져 국내 주력 산업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 예상

- 주요 수출국의 자동차, 의류, 가전, 음식료 등 소비재 수요 성장세가 둔화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섬유소재, 정유, 석유화학 등 소재부품과 일반기계의 동반 수출 부진 야기

- 조선은 해상 물동량 증가율이 낮아지는 등 수출에 부정적 영향

○ **(중국 성장세 둔화)** 중국 성장세 둔화로 대중 수출비중이 높은 자동차, 섬유, 반도체 수출에 부정적 영향 예상

- 자동차는 수요가 감소하고, 경쟁력이 강화된 중국 로컬업체들과 외자 합작 업체들간의 경쟁 심화, 국내 완성차업체의 현지 공장 가동률 하락과 중국내 구조조정 수행으로 국내부품 수요 감소 예상

- 중국의 소비 위축으로 중국 로컬기업의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고, 의류 수출 및 의류용 섬유 소재 수출 부진 전망

○ **(제품 단가)**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정유, 섬유에서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반면, 자동차·가전·음식료는 제품 고급화·프리미엄화에 따른 가격 인상으로 긍정적 영향 전망

- 반도체는 하반기에 메모리반도체의 단가 하락세가 계속되겠지만, 인텔과 AMD의 CPU 신제품 공급, 노트북, 스마트폰, 웨어러블기기 등 첨단기기 수요 회복으로 단가 하락폭은 축소 전망

- 정보통신기기는 '18년 하반기부터 세계 서버시장이 위축되고 낸드플래시 반도체 단가가 하락하면서 국내 SSD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미·중 통상마찰이 장기화될 경우 SSD 수출회복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

- 정유는 글로벌 공급확대로 가격 전가율이 하락하면서 제품 단가의 상승이 제한되고, 섬유 역시 가격경쟁 심화 및 온라인거래 활성화 등으로 단가 인상이 제한적

○ **(글로벌 경쟁 심화)** 소재산업과 반도체를 제외한 IT산업은 중국의 공격적인 설비증설 및 경쟁력 제고로 경쟁 심화에 따른 수출 부진 우려

- 정유는 아시아 주요 경쟁국 및 수출 대상국의 정제설비 증설로 인해 공급물량이 증가하며 경쟁이 심화하고 수출물량 확대가 제한

- 가전은 중국기업의 성장으로 프리미엄 가전에서도 중국기업과의 경쟁 심화

· 중국 TV업체의 글로벌 점유율 추이('17년 → '18년, 수량기준) : TCL(7.1→8.0%), 하이센스(6.1→7.2%), 샤오미(0.4→4.3%)

- 정보통신기기는 중국업체의 신흥시장 진출 확대로 경쟁이 심화되고, AI 폰, 폴더블폰 등 신산업분야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디스플레이는 중국이 LCD 생산 능력에서 세계 1위, OLED 생산 능력은 세계 2위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중국의 OLED 생산 수출 상승으로 인한 경쟁 심화가 이어질 전망

1) 미국 등 주요기업들의 화웨이 스마트폰 및 통신장비에 들어가는 핵심부품과 SW(AP, D램, 통신 모듈, 안드로이드 OS, 구글의 주요 어플리케이션 등) 거래를 중단

- 이차전지는 중국의 공격적인 물량 확대 및 빠른 기술 추격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

□ **하반기 국내 주요 경제지표의 부진, 산업 구조조정, 국내 생산기반 약화, 노동시장 정책 변화 등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 예상**

- **(국내 경기 부진)** 하반기 민간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 등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국내 경기 부진으로 대부분의 주력산업에서 업황 위축 우려
 -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및 가계소득 감소는 일차적으로 자동차, 의류 등 소비재의 민간소비 위축 요인으로 작용
 - 일반기계는 수요산업의 설비투자 둔화로 자동차,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용 국내 수주 감소
 - 전통적 SOC분야 예산감소 및 내수 침체로 건설투자가 둔화되면서 중대형급 건설기계 수요 감소 유발
 - 반도체는 민간소비 둔화로 인한 수요산업의 위축으로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산업 구조조정)**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은 제품 고급화·프리미엄화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가전)과 부정적인 영향(디스플레이)이 업종에 따라 상이
 - 가전은 스마트홈 확산으로 가전산업의 스마트화와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글로벌 및 국내 가전 기업의 성장 기대
 - 스마트화는 제품경쟁력을 갖춘 국내기업의 성장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전사 외에도 플랫폼, 통신, 건설 등 타업종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구조재편이 진행
 - 디스플레이는 LCD 라인의 OLED로의 전환 과정에서 단기적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

- 삼성 디스플레이는 당정의 LCD 8세대 라인을 QD-OLED로 전환하여 2020년 하반기 내지 2021년에 양산예정이며, LCD 수익성 악화에 따른 추가적인 라인 전환 가능성이 상존

- **(국내 생산기반·해외투자)** 해외투자가 확대되면서 조선, 일반기계, 화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국내 생산기반 약화, 수출 감소, 수입 증대 등 생산에의 부정적 영향 예상

- 자동차는 외자계 업체의 생산전략 변화로 국내 생산 물량이 감소하는 반면, 하반기 인도에서 기아차 생산공장이 신규 가동이 예정되어 국내 부품 수요 증가 예상되는 등 상반된 효과가 상존
- 철강은 수입규제 대응과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생산 확대 움직임으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 예상
- 섬유 및 가전은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투자가 계속 진행될 것이 예상되며, 국내 생산 물량의 해외 선회는 불가피
- 정보통신기기는 국내 휴대폰 해외생산 비중이 91%로 높아졌고, 2017년 경부터 휴대폰 부품의 해외생산과 현지조달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생산과 수출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
 - LG전자는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국내 스마트폰 생산을 중단해 나갈 예정으로 국내 생산 및 수출에의 부정적 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
- 중국발 LCD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하락 등으로 국내업체의 LCD 생산량 조정으로 국내 LCD 생산은 지속적 감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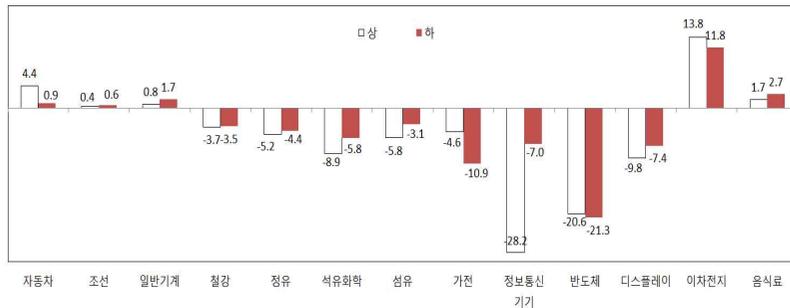
2. 2019년 하반기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 **수출: IT산업과 소재산업의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7.4% 감소 전망**

- 13대 주력산업의 하반기 수출은 글로벌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반도체 가격 및 수출단가 약세 지속,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감소세 유지
- **(기계산업군)** 자동차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하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비 1.2%로 증가세 둔화 전망
 - 하반기 자동차 수출은 SUV, 친환경차 수출이 늘면서 단가 상승이 예상되나, 글로벌 수요 감소와 외자계 업체의 수출용 위탁생산물량 계약이 완료되어 전년동기비 0.9%로 증가세 둔화 전망
 - 조선 수출은 2017~2018년 수주한 다수의 가스 운반선과 MSC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이 본격적으로 인도되면서 전년동기비 0.6% 증가 예상
 - 일반기계는 미국, 유럽, 인도 등에서 제조업 및 건설 부문의 투자가 확대되어 수출 증가가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 부진 및 미·중 통상분쟁 영향으로 1.7% 증가 예상

2019년 하반기 주요 산업별 수출 증가율 전망

단위 : %, 전년동기비



주 1) 달러 표시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 **(소재산업군)** 소재산업군 수출은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하여 수출단가 상승이 제한적이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상반기 6.2%

감소에서 하반기 4.6% 감소 전망

- 철강은 동남아시아의 자국 생산능력이 확대되어 중국, 동남아시아 등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국제 철강가격(열연 가격 기준)이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어 하반기 3.5% 감소 전망
- 정유는 글로벌 수요는 둔화하겠으나, 주요 경쟁국의 대규모 정제설비 가동으로 공급이 확대되어 경쟁이 심화되고 수출단가 상승이 어려워 하반기 수출이 전년동기비 4.4% 감소 예상
- 석유화학은 미·중간 무역분쟁 장기화로 중국의 수입수요가 감소하고, 중국의 관세인상으로 미국산 제품이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경쟁이 심화되어 전년동기비 5.8% 감소 전망
- 섬유는 글로벌 섬유 수요 부진과 수출단가 인상 제약으로 전년동기비 3.1% 감소 전망

- **(IT산업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단가 하락이 지속되어 하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비 15.7% 감소 전망

-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반도체 단가가 하반기에도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년동기비 21.3% 감소 전망
- 하반기 정보통신기기 수출은 해외생산 확대로 감소세가 지속되지만 세계 5G 시장 확대, 신규 5G폰 출시 및 SSD 단가 안정화 등에 힘입어 상반기보다 부진폭이 완화되면서 전년동기비 7.0% 감소 전망
- 디스플레이 수출은 중국의 생산 물량이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단가 하락이 예상되고, LCD의 수출부진이 지속되어 7.4% 감소 전망
- 가전 수출은 글로벌 스마트홈 시장 확산 및 제품의 프리미엄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성장 부진, 미국 셰이프가드로 인한 세탁기 수출감소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상반기 대비 부진한 10.9% 감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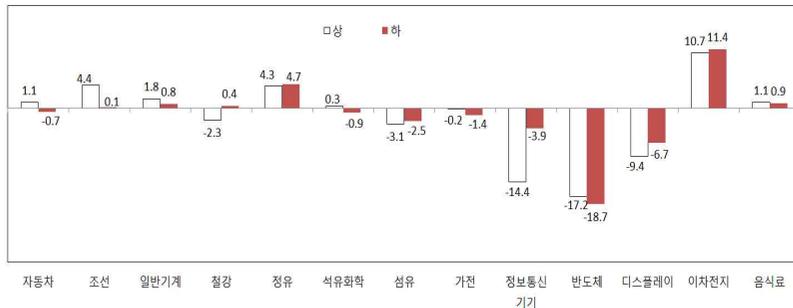
- 반면 하반기 이차전지 수출은 중형 이차전지 세계수요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11.8% 확대되어 상반기의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

□ 생 산: 수출 감소 및 내수 위축으로 상반기의 부진 지속 전망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산업의 수출 부진에 따른 생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IT산업의 생산 증가세 둔화 및 자동차, 석유화학의 감소세 전환으로 하반기에도 생산 부진이 지속될 전망
- **(기계산업군)** 하반기 자동차 생산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조선 및 일반기계의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상반기 대비 생산 부진 전망
 - 자동차 생산은 르노삼성이 닛산으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하던 물량의 계약이 종료되고, 국내 재고가 계속 누적되어 전년동기비 0.7% 감소 예상
 - 조선은 탱커와 컨테이너선 건조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동기비 0.1% 증가 예상
 - 일반기계 생산은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가 위축되면서 전년동기비 0.8%로 증가세가 대폭 둔화될 전망

2019년 하반기 주요 산업별 생산 증가율 전망

단위 : %, 전년동기비



주 :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소재산업군)** 철강 생산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나 석유화학 및 섬유 생산이 지속 줄어들어 하반기 생산은 부진 지속

- 철강은 자동차, 기계, 가전 등 수요산업의 생산이 부진하고, 파잉재고 및 수입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물량이 소폭 증가하여 전년동기비 0.4% 증가세 전환 전망
- 정유 생산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수출물량 확대가 어려워 전년동기비 4.7% 증가율을 유지
- 석유화학 내수는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 등 IT산업을 중심으로 수요가 다소 개선되겠지만 수출이 줄어들면서 0.9% 감소 전환
- 섬유는 지속적인 해외투자, 수출 부진 및 수입 확대로 하반기 생산이 2.5% 감소 전망

- **(IT산업군)** 이차전지를 제외한 IT산업의 생산 부진 지속

- 하반기 반도체 생산은 수출이 계속 부진하고 생산자 재고가 누적되어 18.7% 감소 전망
 -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완화를 위해 증설한 생산시설의 가동률 조정을 통해 생산량 조정
- 정보통신기기 생산은 휴대폰 및 부품의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겠지만, 내수와 수출 부진 개선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3.9%를 기록하며 상반기 대비 감소세 둔화 예상
 - 5G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LG전자의 국내 생산 중단, 베트남, 인도 등 휴대폰 부품의 해외 현지조달 확대가 이어지면서 감소 기록

- 디스플레이 생산은 LCD의 가격이 하락하고, LCD 생산라인의 OLED로의 전환으로 생산물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전년동기비 6.7% 감소

- 가전 생산은 TV 수출이 부진하고, 하반기 대형세탁기의 미국 공장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비 1.4% 감소 전망

- 하반기 이차전지 생산은 높은 수출 증가, 중대형 이차전지 중심의 R&D 투자 확대, 국내 신규 설비라인 구축 및 생산 확대로 11.4% 증가 기대

□ 내수 : 비IT산업의 내수 증가세가 소폭 개선되나, IT산업은 반도체 내수의 성장세 둔화로 상반기 대비 소폭 둔화 전망

○ (기계산업군) 하반기 내수는 자동차 내수가 증가 전환하고 일반기계의 내수 감소폭이 둔화하며 상반기 대비 소폭 개선이 기대

- 하반기 자동차 내수는 12월까지 개소세 인하 연장, 대형 SUV 등 신모델 판매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0.4% 증가세 전환 예상

- 하반기 일반기계 내수는 수요산업 부진으로 내수 기계류 수주가 줄어들면서 감소하겠으나, 수출 증가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0.8% 감소 전망

○ (소재산업군) 철강 내수가 증가하고, 정유 및 석유화학의 내수가 증가세로 개선되면서 상반기 대비 소폭 개선 기대

- 철강 내수는 자동차, 기계 등 수요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건설투자 감소폭이 크게 둔화하고 수입증가의 영향으로 2.3% 증가 전망

- 정유 내수는 하반기 정부의 경기부양책 확대 및 전년 기저효과로 소폭 증가세 전환 전망

- 하반기 석유화학 내수는 IT산업의 업황이 다소 개선되며 전년동기비 0.6% 증가세 전환 예상

- 섬유 내수는 하반기 민간소비가 다소 개선되고 수입 확대가 이어지면서 전년동기비 0.1% 감소하여 상반기 대비 감소폭 둔화가 예상

○ (IT산업군) 반도체 및 가전의 내수 증가세가 둔화하고 디스플레이 내수가 계속 부진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 전망

- 하반기 이차전지 내수는 ESS 화재사고 원인 발표 이후 대형 이차전지의 신뢰성이 회복되고,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확산 정책이 강화되면서 전년동기비 8.6% 증가 기대

- 하반기 정보통신기기 내수는 5G 서비스 수요확대와 전략 스마트폰 등 신제품 출시 효과가 작용하면서 전년동기비 2.4%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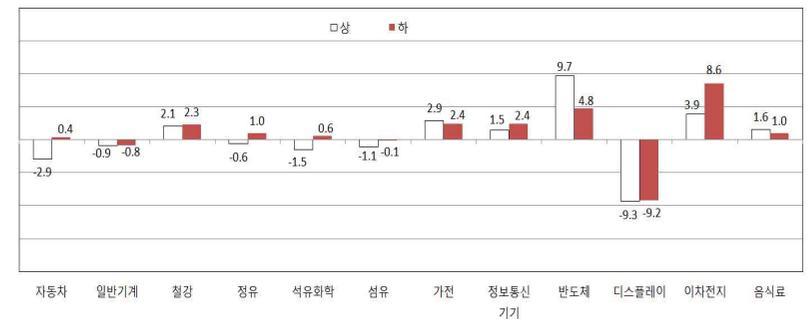
- 하반기 가전 내수는 환경변화 및 소비트렌드 변화로 에어가전 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비 2.4% 증가 전망

- 반도체 내수는 신산업 대응 제품들의 수요와 5G 통신 관련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비 4.8% 증가 전망

- 디스플레이 내수는 경기둔화에 따른 IT 완제품의 수요 감소, 국내 생산 위축, 스마트폰의 수요 부진과 LG 휴대폰 국내 생산 중단 결정으로 전년동기비 9.2% 감소 전망

2019년 하반기 주요 산업별 내수 증가율 전망

단위 : %, 전년동기비



주 :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수입 : 기계산업과 IT산업의 수입 확대로 0.8% 증가세 전환 예상

2019년 하반기 주요 산업별 수입증가율 전망

단위 : %, 전년동기비



○ (기계산업군) 하반기 자동차, 조선 등 수송기기 부문의 수입이 확대되고, 일반기계 수요확대로 수입은 전년동기비 3.0% 확대 예상

- 자동차 수입은 가격 인하와 다양한 신모델이 출시되고, 공급 부족 물량이 하반기에 해소되는 한편, 수입차의 AS 부품과 안전·편의 관련 첨단 기능 구현 수입부품의 수요가 늘면서 전년동기비 4.8% 증가 전망

- 조선은 고기술 선박의 기자재 수입과 중국으로부터의 선박 수입이 늘면서 전년동기비 9.9% 증가 전망

- 일반기계 수입은 하반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감소세가 완화되고, 자동차 생산이 소폭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비 1.3% 증가 예상

○ (소재산업군) 정유 수입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하반기 소재산업의 수입은 전년동기비 3.5% 감소

- 정유(-18.9%) 및 석유화학(-3.5%) 수입은 내수가 계속 부진하고 수입단가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계속 감소할 전망

- 하반기 철강 수입은 국제 철강가격이 하락하고, 국내 범용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동시에, 미국·EU 시장의 규제를 회피하려는 물량이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전년동기비 5.6% 증가 예상

○ (IT산업군) 하반기 IT산업 수입은 중저가 중국산 제품 및 부품 수입이 증가하고, 시스템반도체 및 5G 등 신산업 대응 제품의 수입이 늘면서 전년동기비 3.4% 증가 예상

- 이차전지 수입은 저가 중국산 부분품 및 완제품 수입이 계속 증가하여 전년동기비 10.4% 증가 전망

주 1) 달러 표시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 반도체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자동차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센서류 등 국내 제작이 어려운 시스템반도체 수요 증가로 전년동기비 3.0% 증가 전망

- 디스플레이는 패널 사이즈별 생산공정의 차이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여 수입 수요가 7.6% 증가세 전환 예상

- 가전은 내수 성장 둔화로 수입이 다소 줄어들고, 국내 가전사의 제품 경쟁력과 디자인 개선으로 해외 프리미엄 가전의 수입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전년동기비 1.9% 증가 예상

- 정보통신기기는 5G 인프라망 구축을 위한 통신장비와 완제품 제조용 부품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전년동기비 3.2% 증가 전망

- 4분기 애플의 신제품 출시와 중국업체들의 국내 진출 확대 계획으로 하반기에 외산 스마트폰 수입이 상반기보다 증가할 전망

2019년 하반기 산업전망 기상도

		수출	생산	내수	수입
기계 산업군	자동차	☺	☹☹	☺	☺
	조선	☺	☺	☼☼	☼
	일반기계	☺	☺	☹☹	☺
소재 산업군	철강	☹☹	☺	☺	☼
	정유	☹☹	☺	☺	☹☹
	석유화학	☹	☹☹	☺	☹☹
	섬유	☹☹	☹☹	☹☹	☺
IT 제조업군	가전	☹☹	☹☹	☺	☺
	정보통신기기	☹	☹☹	☺	☺
	반도체	☹☹	☹☹	☺	☺
	디스플레이	☹	☹	☹	☼
	이차전지	☼☼	☼☼	☼	☼☼
음식료		☺	☺	☺	☺

- 주 1) 전망 :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5%~-10%, ☹☹ -5~0%, ☺ 0~5%,
☼ 5~10%, ☼☼ 10% 이상.
2) 생산과 내수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I. 거시경제 전망

1. 국내 실물경제 동향

☐ 수출 및 투자 감소세 · 소비 부진 등으로 현저히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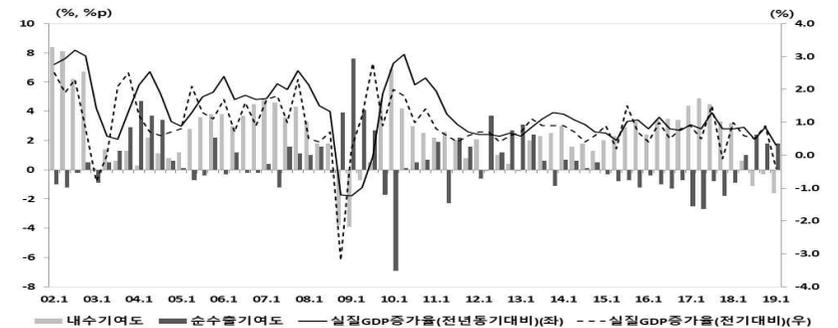
○ 국내 실물경기는 수출이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가 투자의 큰 폭 감소와 소비 둔화로 부진이 이어지면서 완전한 하락세

-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가 올 1분기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민간 소비도 전년동기비 증가율이 1%대로 하락

- 수출(통관기준)은 반도체 수출감소와 수출단가 하락 등의 요인으로 올해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한 모습

- * GDP(전기비, %) : ('18.2/4) 0.6 → (3/4) 0.6 → (4/4) 1.0 → ('19.1/4) -0.3
- * GDP(전년동기비, 이하 同, %) : ('18.3/4) 2.1 → (4/4) 2.9 → ('19.1/4) 1.7
- * 민간소비(%) : ('18.2/4) 2.9 → (3/4) 2.3 → (4/4) 2.4 → ('19.1/4) 1.9
- * 설비투자(%) : ('18.2/4) -4.3 → (3/4) -9.4 → (4/4) -5.3 → ('19.1/4) -17.4
- * 건설투자(%) : ('18.2/4) -2.5 → (3/4) -8.7 → (4/4) -5.7 → ('19.1/4) -7.2
- * 통관수출(%) : ('18.2/4) 3.1 → (3/4) 1.7 → (4/4) 7.7 → ('19.1/4) -8.5

<그림 1-1> 실질 GDP 및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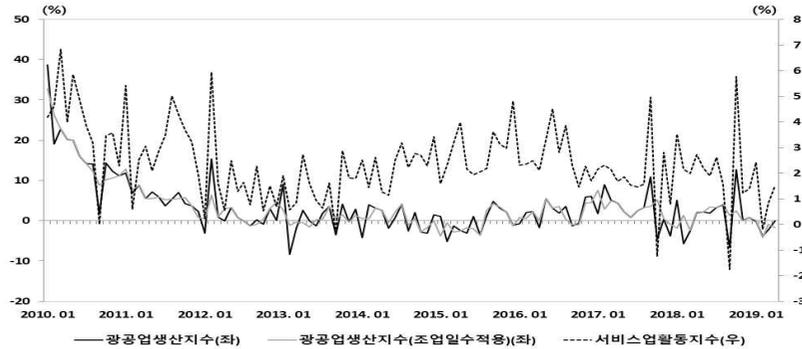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주 : 내수는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합.

○ 산업생산은 2017년 4분기부터 증가율이 급등락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이나, 올 2월 이후 광공업에서 감소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며, 서비스업은 소폭 증가

* 광공업(전년동월비, %) : ('19.1월) -0.2 → (2월) -3.8 → (3월) -2.3 → (4월) -0.1
 * 서비스(전년동월비, %) : ('19.1월) 2.4 → (2월) -0.2 → (3월) 0.8 → (4월) 1.5

<그림 1-2>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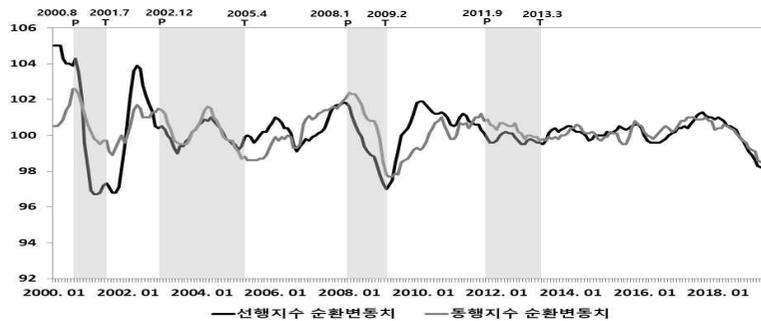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경기선행지표는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11개월 연속 동반 하락 이후, 보합

* 선행 순환변동치 전월차: ('19.1월) -0.3 → (2월) -0.3 → (3월) -0.1 → (4월) 0.0
 * 동행 순환변동치 전월차: ('19.1월) -0.1 → (2월) -0.5 → (3월) -0.1 → (4월) 0.0

<그림 1-3> 경기종합지수 추이



자료 : 통계청.

2. 대외여건 전망

(1) 세계경제

□ 2019년 상반기 동향 : 연초 약세 지속

○ 전세계 실물경기는 지난해 말에 선진권과 개도권의 동반 둔화로 인해 현저한 둔화세를 보인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약세 흐름이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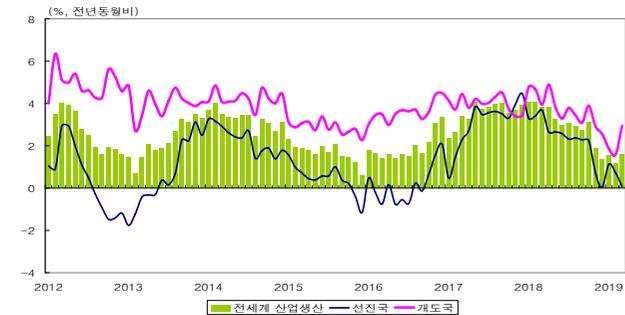
- 선진권은 미국이 올해 들어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둔화에도 재고투자와 무역수지 확대 등에 힘입어 연 3%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과 유로권은 지난해 4분기부터 성장세가 현저히 둔화

- 개도권은 중국이 올해 들어 투자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 둔화 여파로 6%대 중반의 성장에 그치고 있으며, 러시아 등 동구권과 중동 및 중남미 등 대다수 지역에서 경기 둔화세가 이어지는 양상

- 전세계 산업생산은 지난 연말에 2016년 중순 이후 처음으로 1%대 증가율, 올 2월에는 1.2% 증가에 그치면서 2015.11월 이후 최저치

* 세계 산업생산 : (2018) 3.1% (2018.하반기) 2.5% (2019.1~3월) 1.4%
 · 선진권 : (2018) 2.4% (2018.하반기) 1.7% (2019.1~3월) 0.6%
 · 개도권 : (2018) 3.8% (2018.하반기) 3.3% (2019.1~3월) 2.1%

<그림 1-4> 세계 권역별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2019년 하반기 전망 : 연간 성장률 전년대비 하락 예상

- 2019년 세계경제는 선진권의 성장 둔화와 개도권의 성장 약화로 전년 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하반기에도 성장 탄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미국경제는 연준이 현재의 금리동결 기조를 유지하면서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이나, 그간 내수 지지를 견인해 온 감세 정책효과가 소멸되면서 내수는 둔화세가 예상
- 일본과 유로권은 대내외 여건의 약세 영향으로 전년 수준 내지 그 이하의 제한적인 성장세가 예상되고, 중국은 정부의 구조개혁 지속과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인해 연간 6%대 초반의 성장률이 예상
- 세계경기 향방의 주요 변수들로는 G2(미·중) 무역분쟁 해소 여부와 글로벌 긴축 기조의 완화 가능성, 정치적 불확실성(브렉시트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여부 등이 주요 관건

〈표 1-1〉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성장률 추이와 전망

단위 : %, 전년동기비(전기비 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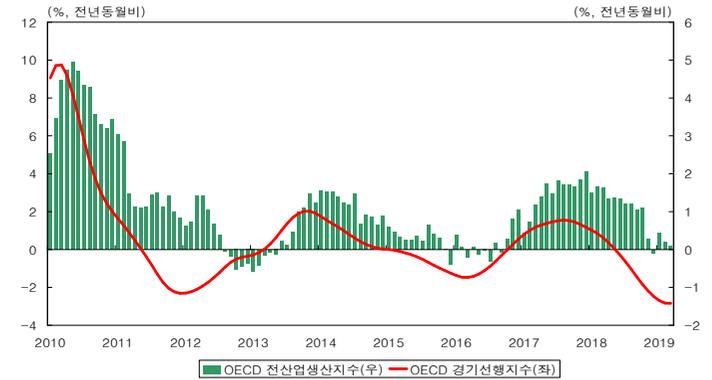
	2017	2018				2019		전망치 조정폭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세 계	3.7					3.5	3.2	▲0.1	
선진권1)	2.6	2.6	2.5	2.2	1.8	2.3	-	1.8	
미 국	2.2	2.6 (2.2)	2.9 (4.2)	3.0 (3.4)	3.0 (2.2)	2.9	3.2 (3.1)	2.8	△0.2
유 로	2.5	2.4	2.2	1.6	1.2	1.8	1.2	1.2	△0.2
일 본	1.9	1.3	1.5	0.1	0.2	0.8	0.8	0.7	▲0.1
개도권	4.8					4.5		4.3	-
중 국	6.8	6.8	6.7	6.5	6.4	6.6	6.4	6.2	0.0
세계교역	5.5					3.9		2.1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8.4월) 등.

주 1) 분기별 수치는 OECD의 성장률을, 연도별 수치는 IMF의 선진권의 성장률을 의미.

2) 전망치 조정폭은 2018.1월과의 변화폭이며, △는 상향조정을 의미.

〈그림 1-5〉 OECD 산업생산 및 경기선행지수 변화율 추이



〈표 1-2〉 주요 권역별 및 국별 경기선행지수(CLI) 추이

	경기선행지수 (장기 추세=100)					전월비 변화율 (%)					전년 동월비 19.4월	경기 전망**
	2018	2019				2018	2019					
	12월	1월	2월	3월	4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OECD	99.4	99.3	99.2	99.1	99.0	-0.15	-0.13	-0.10	-0.07	-0.05	-1.39	성장모멘텀 약화
유로권	99.6	99.5	99.3	99.2	99.1	-0.14	-0.14	-0.13	-0.13	-0.12	-1.56	성장모멘텀 약화
아시아 개도권*	99.2	99.2	99.2	99.3	99.3	-0.01	0.01	0.03	0.05	0.06	-0.39	안정적 성장세
선진권(G7)	99.5	99.3	99.2	99.1	99.0	-0.19	-0.18	-0.15	-0.11	-0.09	-1.48	성장모멘텀 약화
캐나다	99.2	99.0	98.9	98.9	98.8	-0.21	-0.16	-0.11	-0.07	-0.06	-1.57	성장모멘텀 약화
프랑스	99.2	99.2	99.2	99.2	99.1	-0.08	-0.04	-0.03	-0.02	-0.02	-1.26	안정적 성장세
일본	99.8	99.7	99.5	99.4	99.3	-0.12	-0.14	-0.14	-0.13	-0.10	-0.87	성장모멘텀 약화
독일	99.8	99.6	99.4	99.1	99.0	-0.22	-0.24	-0.23	-0.21	-0.18	-1.83	성장모멘텀 약화
이탈리아	99.6	99.5	99.3	99.1	99.0	-0.13	-0.15	-0.16	-0.15	-0.14	-1.77	성장모멘텀 약화
영국	98.8	98.7	98.6	98.6	98.6	-0.18	-0.13	-0.08	-0.03	0.01	-1.49	성장 안정화
미국	99.5	99.3	99.1	99.0	98.9	-0.23	-0.20	-0.16	-0.11	-0.08	-1.56	성장모멘텀 약화
브라질	102.1	102.3	102.4	102.4	102.3	0.17	0.16	0.09	0.00	-0.06	-0.32	성장 안정화
중국	98.5	98.5	98.6	98.7	98.8	-0.02	0.02	0.06	0.10	0.12	-0.64	안정적 성장세
인도	100.5	100.5	100.5	100.6	100.6	0.00	0.01	0.01	0.01	0.03	0.31	안정적 성장세
러시아	99.9	99.8	99.8	99.8	99.9	-0.16	-0.08	-0.02	0.02	0.04	-1.13	안정적 성장세

자료 :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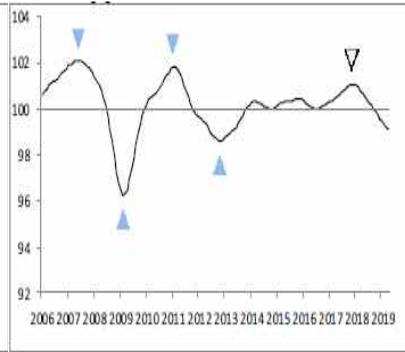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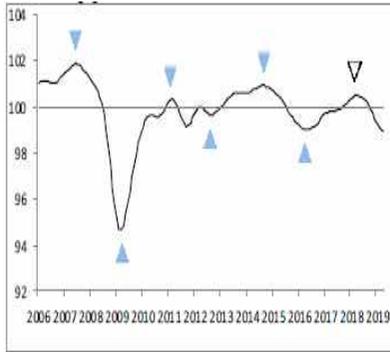
주 1) 한국,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2) 지수가 100 이상에서 상승(또는 하락)하면 expansion(또는 downturn), 반대로 100 미만(음영 부분)에서 상승(또는 하락)하면 recovery(또는 slowdown)를 의미.

〈그림 1-6〉 세계 주요국별 경기선행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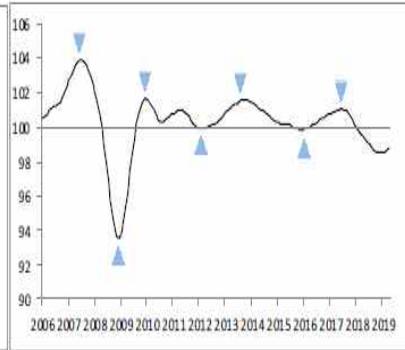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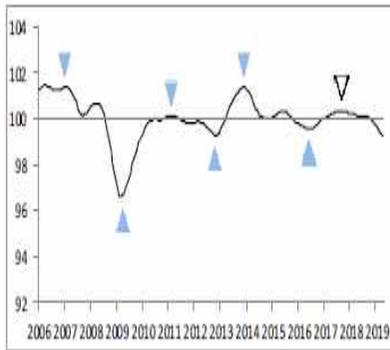
(a) 미 국

(b) 유 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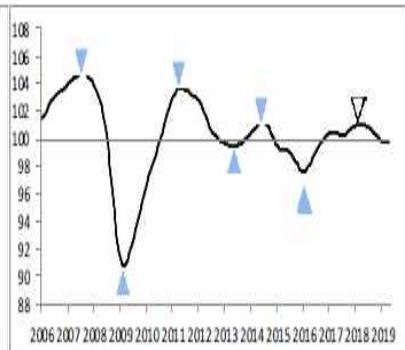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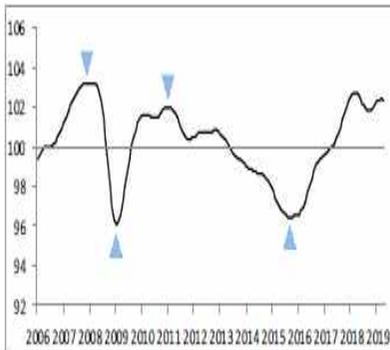
(c) 일 본

(d) 중 국



(e) 브라질

(f)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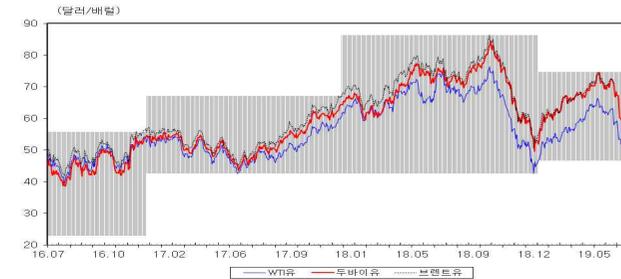


자료 : OECD.

(2) 유가 : 배럴당 66달러 수준 예상

- 국제유가는 WTI유 기준으로 2018년 12월 배럴당 40달러대 초반까지 하락한 이후에 계속 상승하면서 2019년 5월 현재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70달러 수준까지 상승하고, 6월에는 다시 60달러대 초반까지 하락
- 지난 2018년 하반기 유가의 대폭적인 하락은 미국의 이란 제재에도 불구하고 주요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늘린 공급측 요인과 세계 경제성장 둔화 전망으로 원유 수요가 줄어든 수요측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 2019년 상반기 유가의 상승 추세는 OPEC을 비롯한 산유국들의 감산과 베네수엘라, 이란, 리비아에서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견인하였고, 이후 6월의 하락 전환은 미·중 무역갈등 지속과 산유국 감산 합의 연장 불확실성 등의 영향을 반영

〈그림 1-7〉 국제유가 추이



자료 : 한국석유공사.

주 : 음영 부분은 연간 변동 범위(최소값~최대값)임.

〈표 1-3〉 국제유가 현황

단위 : 달러/배럴, 기간 평균

	2017년					2018년				2019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5월	6월
WTI	51.8	48.2	48.2	55.4	50.9	62.9	67.9	69.5	59.1	64.8	54.9	60.8	52.7
Brent	54.6	50.8	52.2	61.5	54.7	67.2	75.0	75.8	68.4	71.6	63.8	70.3	61.7
Dubai	53.0	49.6	50.4	59.3	53.1	63.9	72.1	74.1	67.7	69.5	63.4	69.6	60.4

자료 : 한국석유공사.

주 : 2018년 6월은 6월 1일부터 14일(현재) 평균.

○ 2019년 하반기 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배적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기 둔화로 원유 수요가 억제됨에 따라 상승폭이 크게 제한되면서 상반기 대비 소폭 상승에 그칠 전망

- 사우디 송유시설 공격(5.14)과 두 차례에 걸친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피격사건(5.12, 6.13)의 배후로 이란이 지목되면서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석유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향후 유가의 주요 변수

- 공급측면에서는 OPEC과 러시아를 비롯한 OPEC 비회원국들(OPEC+)이 올 하반기까지의 감산 연장을 합의할 경우, 추가적인 유가 상방압력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그러나 수요 측면에서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로 세계경기 둔화세가 지속됨에 따라 원유 수요가 감소할 전망

* 전반기에 부진하였던 셰일가스 생산도 하반기에 인프라가 확장되면서 늘어날 전망

○ 두바이유 기준 유가는 2019년 상반기 65.4달러(전년동기비 4.0% 하락), 하반기 67.0달러(전년동기비 5.5% 하락)로 연간 전체로는 66.2달러(전년동기비 4.7% 하락) 내외가 예상

<표 1-4> 2019년 유가 전망(국내경제 전망을 위한 전제)

단위 : 달러/배럴, 기간 평균

	2018년			2019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두바이유	68.1* (32.7)	70.9* (29.4)	69.5* (30.9)	65.4 (-4.0)	67.0 (-5.5)	66.2 (-4.7)

주 : ()는 각각 전년동기비 기준, 단위 %, *는 실측치.

(3) 환율 : 전년 대비 상승 전망

○ 2019년 원/달러 환율은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된 것을 계기로 1,190원을 넘어서면서 2017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빠른 상승 흐름을 보이는 모습

- 연초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분쟁, 일부 신흥국 금융 불안요인 등의 영향으로 1,110원~1,130원대의 일정 범위 내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며 횡보하는 모습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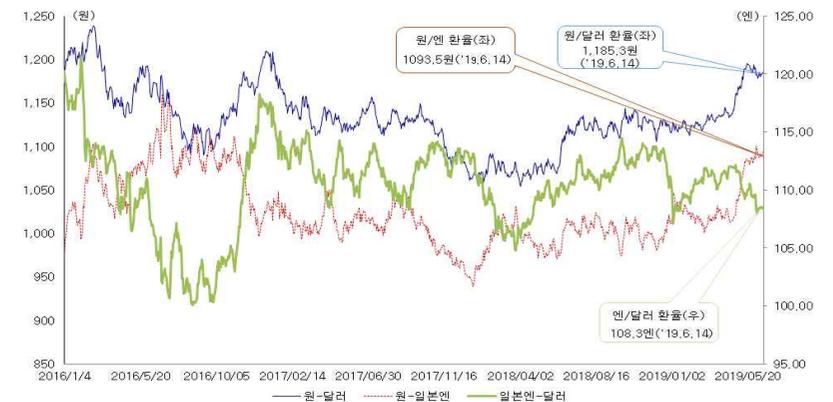
* 1분기 최고점(1092.1원, 2월9일), 최저점(연중 최저점, 1112.7원, 1월31일)

- 2분기 들어서는 국내경제 성장률 악화 등 경제지표 부진과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 여파, 미국과 여타 국가들간 경기격차 확대 우려, 외국인 배당금 송금수요 급증 등의 요인으로 급등

- 특히, 5월초 미·중 무역협상 결렬 여파로 인해 원화 가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2017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 1분기 이후 최고점(연중 최고점, 1195.7원, 5월17일), 최저점(1133.1원, 4월15일)

<그림 1-8> 최근 원/달러, 원/엔(100엔),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2019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전반적인 상승 기조가 유지되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 미·중 무역분쟁과 우리나라 경제지표 부진 등의 원화 가치 약세 요인과 미국과 주요국들의 경기격차 확대에 의한 달러화 강세 등 원/달러 환율의 상방 요인들의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제성장률 격차 확대와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 호주의 금리 인하에서 비롯된 글로벌 위험자산 통화 가치 동반 하락 등이 원/달러 환율의 주요 상승 요인이 될 전망

- 하지만 하반기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

*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제한 요인

- ① 미국과 주요국의 경기격차 완화 가능성과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중단에 따른 유동성 환경 개선 등이 글로벌 달러화 약세를 이끌 가능성
- ② 향후 미·중 무역분쟁 타결 가능성 대두 및 중국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 등이 신흥국 통화 및 원화 강세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③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강화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 추세로 인하여 약해진 점과 미국 물가 상승폭 둔화 등으로 인하여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진 점

○ 2019년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1,144.9원(전년동기비 6.4% 상승), 하반기 1,160원(전년동기비 3.1% 상승), 연간 1,152원(전년동기비 4.7% 상승) 내외 예상

<표 I -5> 원/달러 환율 전망

2018년			2019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076.1 (-5.7)	1,124.6 (0.5)	1,100.3 (-2.4)	1,144.9 (6.4)	1,160 (3.1)	1,152 (4.7)

주 : 1. ()는 각각 전년동기비 기준, 단위 %
2. 2019년 상반기는 2019년 6월 현재 기준.

3. 2019년 국내경제 전망

(1) 경제성장

○ 2019년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인한 수출 부진과 투자 감소, 소비 둔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년보다 낮은 2.4%의 성장률이 예상

-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내수에서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큰 폭 감소가 예상되며, 소비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둔화되면서 올해 성장률 하락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

- 실물지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의 증대(공공부문 예산확대와 추경 집행 등)는 경제성장률에 플러스 요인

* 정부지출 비중 (명목 기준, GDP 대비) 2017년 15.4% → 2018년 16.1%

* 정부지출 성장기여도 (실질 기준) 2017년 0.6%p → 2018년 0.9%p

- 전년동기비 기준으로는 상저하고의 성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수출은 하반기에 감소세가 다소 완화될 것이나, 수출단가 하락과 반도체 수출 감소 여파, 전년도에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연간 전체로는 감소세가 불가피할 전망

- 2019년 수출은 약 5.9%, 수입은 약 1.5% 감소하고, 무역흑자는 전년보다 줄어든 약 421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내수는 소비가 고령층 중심 고용 증대와 소비심리 약세 지속 등으로 연간 증가율이 전년보다 낮아지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성장률 하락에 일조

- 소비는 정부의 가계소득 안정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중심 고용 증대와 소비심리 약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연간 증가율이 하락 예상

- 설비투자는 현 수준에서 추가적인 감소 가능성이 낮아 보이나, 미·중 통상마찰과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연간 전체로는 감소폭의 확대가 예상되며, 건설투자는 SOC 예산 증대, 공공부문 투자 확대 및 집행으로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연간 전체 감소폭은 축소 전망

○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여부, 중국경제 성장세, 글로벌 건축 기조의 완화 가능성, 유가 및 환율 등 국제가격지표 변동성 확대 여부 등이,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주요 업종들의 수출여건 개선 여부 및 반도체 경기, 소비심리 개선과 추경의 조기 집행 여부 등이 주요 변수

<표 1-6>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 억 달러

	2018년			2019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2.8	2.5	2.7	2.0	2.7	2.4
민간소비	3.2	2.4	2.8	2.1	2.6	2.4
건설투자	-0.7	-7.2	-4.3	-6.4	-0.2	-3.3
설비투자	3.0	-7.4	-2.4	-13.6	1.7	-6.0
통관 수출 (억달러, %)	2,967 (6.3)	3,082 (4.6)	6,049 (5.4)	2,744 (-7.5)	2,948 (-4.3)	5,692 (-5.9)
통관 수입 (억달러, %)	2,656 (13.4)	2,696 (10.6)	5,352 (11.9)	2,559 (-3.6)	2,712 (0.6)	5,271 (-1.5)
무역수지	311	386	697	185	236	421

자료 : 산업연구원.

(2) 부문별 전망

1) 민간소비

○ 최근 민간소비는 환율과 유가 상승에 따른 실질총소득(GDI) 증가세의 둔화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증가율이 하락

- 의복 등 준내구재와 승용차 등 내구재 소비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화장품 등 비내구재 소비는 소폭 회복세

- 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오르고,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소비와 동행하는 실질총소득(GDI)의 증가세가 둔화

* 국제유가 변화 (두바이유, \$/bbl) : '17.12월 61.6 → '18.12월 57.3 → '19.4월 70.9

* 수입물가지수(한국은행, 달러화 기준, 2015=100) : '17.12월 106.5 → '18.12월 106.0 → '19.4월 110.0

<표 1-7> 민간소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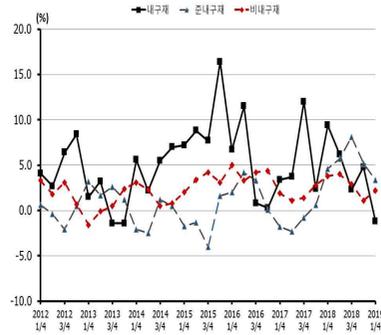
단위 : 전년동기비, %

	2017년	2018년				2019년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4월
민간소비	2.8	3.6 (0.7)	2.9 (0.5)	2.3 (0.4)	2.4 (0.8)	2.8	1.9 (0.1)	- (1.0)
소매판매액지수	1.9	5.3 (2.1)	5.0 (0.6)	3.8 (-0.2)	3.0 (-0.1)	4.2	1.7 (1.3)	1.4 (-1.2)
실질 GDI	3.3	2.5 (1.8)	2.0 (-0.6)	0.1 (0.1)	1.0 (-0.3)	1.4	-0.5 (0.2)	- (0.0)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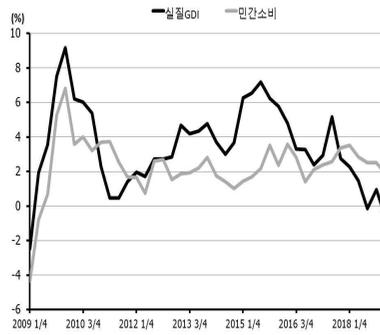
주 : ()안은 계절조정 자료의 전기비.

<그림 I-9> 재화별 소비 추이
(전년동기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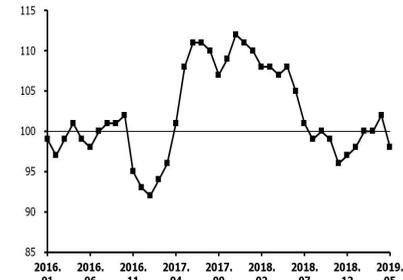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I-10> 민간소비와 실질GDI
(전년동기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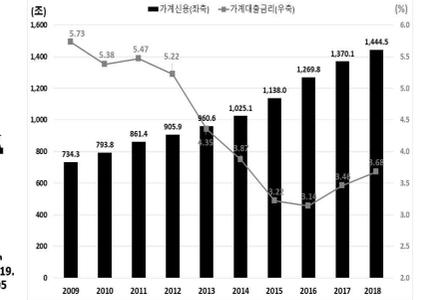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I-13> 소비자 심리지수



자료 : 한국은행.

<그림 I-14> 가계부채 및 대출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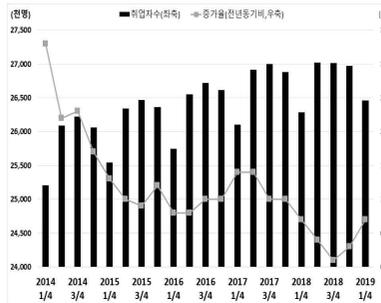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최근에 취업자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4월 고용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취업자 확대가 대부분 소비여력이 낮은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 진작에 제한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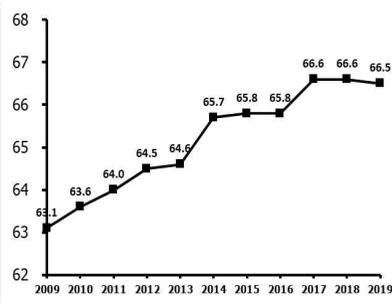
*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 (1월~4월) : 2016년 13.6% → 2017년 14.4% → 2018년 15.1% → 2019년 16.3%

<그림 I-11> 취업자수 추이



자료 : 통계청.

<그림 I-12> 4월 고용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 또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등이 소비 제약 요인

- 하반기 민간소비는 고용 여건의 개선과 정부의 가계소득 지원정책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높아질 것이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고용 증가가 상대적으로 평균소비성향이 낮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서 연간 전체로 전년에 비해서 낮은 증가율이 예상

- 정부의 가계소득 안정정책(주거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확대) 등은 긍정적인 요인

- 반면 글로벌 경제 둔화, 미·중 무역마찰,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인해 민간소비 증가는 예년에 비해 둔화 전망

<표 I-8> 민간소비 전망

단위 : %, 전년동기비

	2018년			2019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민간소비	3.2	2.4	2.8	2.1	2.6	2.4

자료 : 산업연구원.

2) 투 자

□ 설비투자

- 설비투자는 2017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추세선을 상회한 이후에 대폭적인 조정국면에 접어들면서 4분기 연속 감소세
- 설비투자는 2018년 2분기부터 전년동기비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9년 1분기에는 감소 폭이 더욱 크게 확대(-5.3% → -17.4%)
- 특히 투자 확대를 주도한 반도체 업종에서 2018년 하반기부터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됨에 따라 투자 수요가 감소
-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 역시 투자 감소폭을 확대시키는 요인
- 형태별로는 기계류 투자가 2018년 3분기 이후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이고, 운송장비 투자는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증가세를 회복한 이후, 연초에 일시 감소하고, 최근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

〈표 1-9〉 설비투자 추이

단위 : %

		2018					2019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전년 동기 비	설비투자	10.2 (4.3)	-4.3 (-8.4)	-9.4 (-4.0)	-5.3 (3.2)	-2.4	-17.4 (-9.1)
	기계류	11.2 (-0.5)	-2.5 (1.6)	-13.6 (9.2)	-14.4 (12.1)	-5.0	-21.7 (-19.5)
	운송장비	6.8 (5.7)	-9.6 (-11.1)	8.1 (-7.9)	23.4 (0.1)	6.7	0.1 (-5.0)

자료 : 한국은행.

주: () 안은 계절조정계열의 전기비 증감률

〈표 1-10〉 부문별 설비투자 추이

단위 : %,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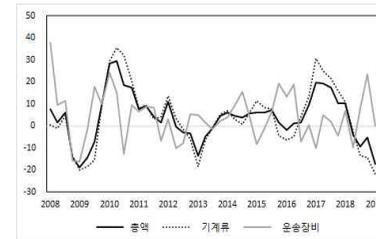
	2018					2019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1)	4월1)
총지수	-11.2	-19.3	10.2	-9.4	-15.1	-17.0	-26.9	-15.6	-6.3
기계류	-18.1	-20.2	5.7	-14.8	-21.5	-21.9	-29.2	-20.1	-11.8
일반기계류	-28.9	-24.5	-2.8	-23.8	-33.9	-35.3	-42.0	-34.9	-24.3
전기및전자기기	-2.9	-15.8	9.8	-4.7	-4.7	-2.7	-7.9	7.3	13.4
정밀기기	3.6	-5.0	34.2	2.0	9.4	8.3	-2.2	4.8	10.5
기타기기	4.1	-18.7	17.8	7.2	7.2	1.0	-4.7	11.1	2.8
운송장비	8.6	-16.8	21.9	4.7	5.0	-0.1	-20.1	-4.0	10.4
자동차	12.7	-23.3	18.6	-6.1	1.2	-3.2	-6.6	-4.5	4.4
기타운송장비	-3.8	12.9	36.1	67.7	21.7	13.6	-54.2	-2.4	35.0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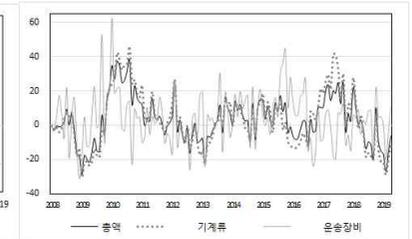
주: 1) 잠정치

〈그림 1-15〉 설비투자 추이

(%, 전년동기비)



(%, 전년동기비)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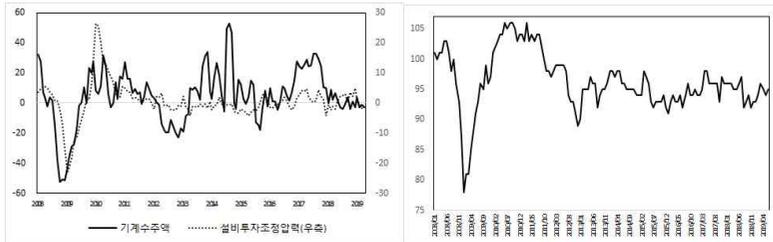
- 2019년 설비투자는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감소하지 않지만, 상반기에 대폭 감소한 영향으로 연간 전체 기준 감소세가 예상
-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미 이루어져서 추가적인 투자 가능성을 제약
- 미·중 통상마찰 지속과 세계경기 둔화 가능성은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해서 유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다만, 설비투자과 관련된 선행지표들(기계수주액과 설비투자조정압력 등)이 추가적으로 급락하지 않는 모습이며, 정부의 경제활력 제고 대책 추진과 추경 집행 가능성 등이 기업들의 투자 불안 심리를 다소 완화시키면서 하반기 설비투자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설비투자는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비 13.6% 감소, 하반기에는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연간 전체로 6.0% 감소 전망

<그림 1-16> 설비투자 선행지표 추이

- (a) 설비투자 선행지수 증가율 (%, 전년동기비)
- (b)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 BSI (BSI, 기준=100)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 주: 1) 기계수주(불변, 선박을 제외한 국내수요)와 설비투자조정압력은 3개월 중심항 이동 평균
- 2) 설비투자조정압력 = 제조업 생산지수 증감률 - 제조업 생산능력 증감률
- 3) 설비투자 전망은 다음 달 전망

□ 건설투자

- 건설투자는 2018년 2분기부터 감소세를 보인 이후에 올 1분기에는 전년 동기비 7.2% 감소
- 부동산 규제와 경기 둔화로 인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설의 수요 부족으로 인해 건물건설 투자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
- 토목건설은 플랜트 등 토목공사 부문에서의 침체 여파로 감소세 지속
- 다만, 건설기성액이 최근 들어 감소폭이 점차 둔화되는 모습

<표 1-11> 건설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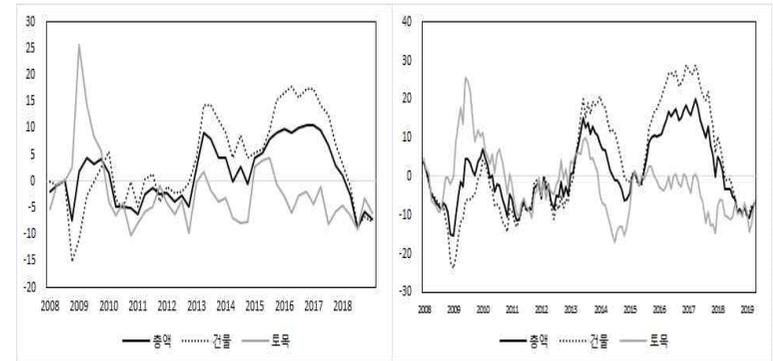
단위 : %

		2018년				2019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¹⁾	
전년 동기비	건설투자	1.2	-2.5	-8.7	-5.7	-7.2	
	형태 별	건물건설	3.3	-1.1	-8.6	-6.8	-7.6
		주거용 건물	5.6	-2.0	-4.7	-6.7	-12.0
		비주거용 건물	0.3	-0.1	-12.5	-6.8	-1.6
		토목건설	-4.6	-6.3	-9.0	-3.1	-6.0
	주 체 별	민 간	2.8	-4.8	-8.2	-8.0	-7.6
		정 부	-6.9	4.9	-11.5	3.0	-4.5
	전기 비	건설투자	0.9	-2.5	-6.0	1.8	-0.8
형태 별		건물건설	0.2	-2.4	-5.5	0.7	-0.7
		주거용 건물	1.7	-4.6	-1.0	-2.9	-4.5
		비주거용 건물	-1.4	0.1	-10.4	5.1	3.7
		토목건설	2.9	-2.8	-7.4	5.1	-1.2
주 체 별		민 간	1.8	-4.9	-4.6	-0.7	1.9
		정 부	-3.1	8.4	-11.3	12.8	-11.2

자료 : 한국은행.
주: 1) 잠정치

<그림 1-17> 건설투자와 건설기성액 추이

- (a) 건설투자 증가율 (%, 전년동기비)
- (b) 건설기성액 증가율 (%, 전년동기비)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건설기성액은 3개월 중심항 이동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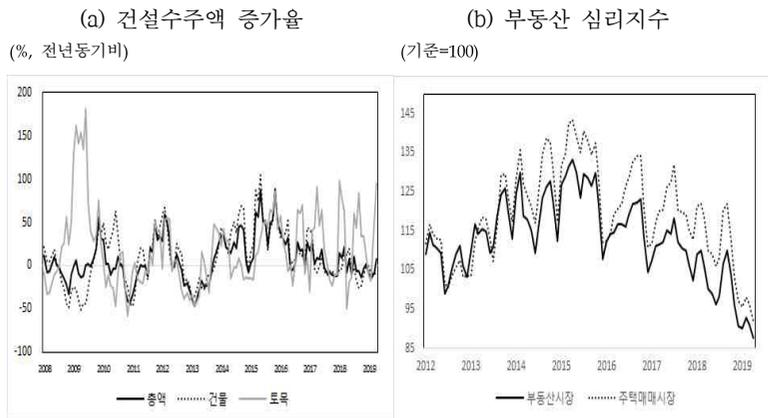
○ 2019년 건설투자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의 영향으로 건물건설에서 감소세가 이어지나, SOC 예산 증대 등으로 인해 토목건설에서의 부진이 완화되며 추가적인 감소 추세는 다소 완화될 전망

- 건물건설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이 수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현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으로 보더라도, 건물건설에서 여전히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토목건설에서 큰 폭 증가하면서 총액 기준으로는 소폭 증가
- 특히 SOC 예산 증대 및 공공부문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하여 토목건설에서의 부진이 상당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

○ 건설투자는 올해 SOC 투자 증액 영향으로 지난해(-4.3%)보다 감소 폭이 줄어든 3.3%의 감소율을 기록할 전망

-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비 6.4% 감소하고, 하반기에는 0.2% 감소할 전망

<그림 1-18> 건설투자 선행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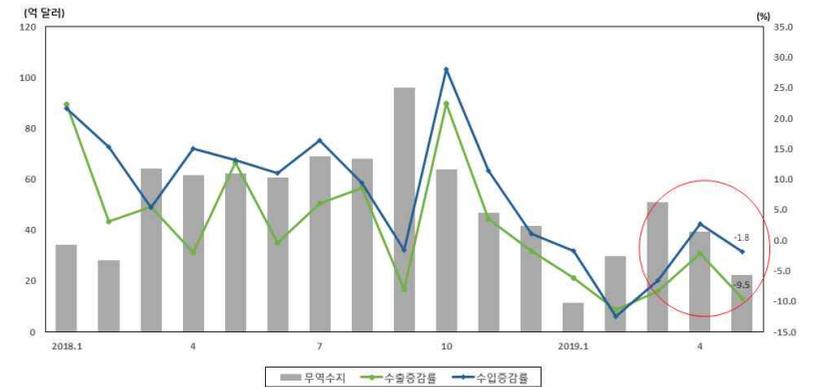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국토연구원.
주 : 건설수주액은 3개월 중심향 이동평균.

3) 수출입

□ 2019년 상반기 동향 : 올해 들어 수출입 감소세 지속

-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둔화된 수출은 12월에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올해 들어 5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
- 수입도 국내 경기둔화와 반도체 수출 감소에 따른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자본재 수입의 감소로 올 들어 감소세가 지속

<그림 1-19>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수지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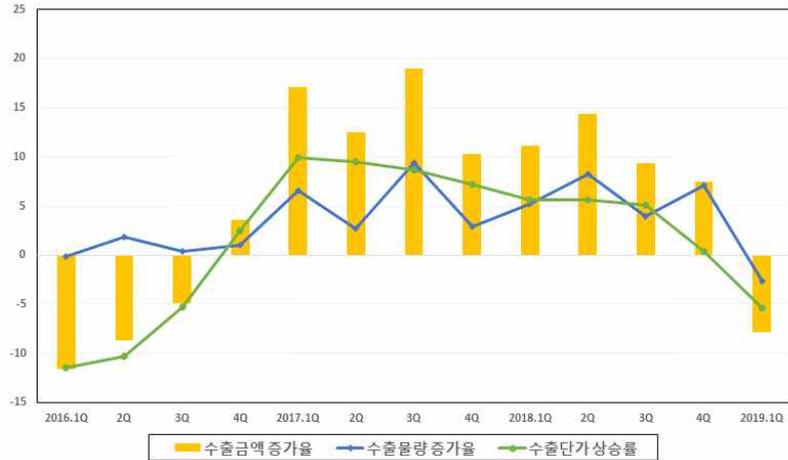
○ 수출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전년동기비 7.4%나 감소

- 이는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급감한 데다,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었기 때문

○ 수출을 단가와 물량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세계경기 둔화로 수출물량이 소폭 감소한 가운데, 반도체 가격의 하락폭 확대와 석유화학·석유제품 가격 하락으로 수출단가도 큰 폭 하락하면서 수출 감소세가 지속

〈그림 1-20〉 수출단가 및 수출물량 증가율 추이

단위 : %, 전년동기비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DB.

주 : 수출단가지수는 수출금액지수를 수출물량지수로 나누어 산정.

〈표 1-12〉 산업별 수출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비, %

	수출증가율			수출비중		
	2017	2018	2019(1-5월)	2017	2018	2019(1-5월)
반도체	57.4	29.4	-21.9	17.1	20.9	17.2
일반기계	11.3	10.2	1.4	8.5	8.9	9.8
석유화학	23.5	11.9	-10.7	7.8	8.3	8.2
철강	3.8	-1.9	6.7	7.3	6.8	7.9
자동차	32.0	32.3	-5.0	6.1	7.7	7.5
석유제품	20.0	-0.7	-4.3	6.0	7.8	5.9
조선	-9.5	-0.1	0.0	4.0	3.8	4.2
자동차부품	23.1	-49.6	-4.0	7.4	3.5	4.0
디스플레이	9.0	-9.8	-11.5	4.8	4.1	3.6
섬유	-0.5	2.5	-6.1	2.4	2.3	2.4
무선통신기기	-25.5	-22.7	-24.3	3.9	2.8	2.4
컴퓨터	9.5	16.9	-32.9	1.6	1.8	1.3
가전	-22.1	-18.3	-4.2	1.5	1.2	1.3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산업별로는 선박류, 자동차, 일반기계를 제외한 10개 품목의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특히 글로벌 수요 부진과 경쟁 심화, 단가 하락 등으로 반도체, 컴퓨터, 디스플레이 등 IT제품의 수출이 더 큰 폭으로 감소
 -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 단가의 대폭 하락과 글로벌 IT기업의 데이터 센터 재고조정 지속으로,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생산 확대에 따른 패널 가격 하락과 국내업체의 LCD 출하량 조정 영향으로 큰 폭 감소
 - 석유제품·석유화학은 글로벌 수요 둔화 및 공급 확대로 수출단가가 떨어지면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철강도 주요 선진국의 수입규제 확대 등으로 수출이 소폭 감소
 - 반면에 자동차는 신차 출시 효과와 단가가 높은 SUV와 친환경차의 수출 호조로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조선도 지난 2017년 수주한 선박의 본격 인도에 따라 3월 이후 본격적인 증가세로 전환

- 지역별로는 미국에 대해서만 수출이 전년동기비 9.5% 증가하고, 중국·중동에 대한 수출은 두 자릿수 이상 대폭 감소하였고, ASEAN·EU·일본지역 수출도 소폭 감소
 - 경기회복세가 뚜렷한 미국으로의 수출은 자동차와 가전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경제성장률 둔화와 반도체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두 자릿수 이상 대폭 감소
 - 성장률 전망치가 하락하고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진 EU 지역으로의 수출도 감소세로 전환
- 수입은 국내 경기 둔화와 투자 부진으로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대폭 감소하였고, 원유 등 1차산품 수입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소비재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입이 소폭 증가

<그림 1-21> 지역별 수출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표 1-13> 가공단계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2018		2019(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총수입	5,352	11.9	2,120	-3.9	100
1차산품	1,298	23.6	494	-3.8	23.3
(원유)	804	34.9	299	-2.9	14.1
중간재	2,579	11.0	1,057	0.6	49.9
자본재	771	-2.6	272	-21.9	12.8
소비재	678	13.6	287	1.2	13.5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019년 전망 : 수출 감소 영향으로 연간 무역흑자 규모 축소

- 2019년 하반기 수출은 반도체 가격의 하락세 둔화 등으로 감소폭이 둔화될 전망이다,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 연간 수출이 전년대비 5.9% 감소 전망

- 세계경기는 미·중 무역협상의 결렬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세계 교역도 위축될 것으로 보이나, 미 연준과 ECB의 금리인하 시사 등 주요국들의 긴축기조 완화 가능성과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은 우리 수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화웨이 제재 등으로 인한 시장규모 축소로 부진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나, 단가 하락세가 둔화되고 글로벌 IT기업들의 재고소진 시점에서 수출 감소세는 진정될 것으로 예상

-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은 하반기 유가의 소폭 상승에도 수요 감소와 해외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확대 요인으로 수출단가 상승 여력이 낮아 수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 반면에 조선은 2017년 이후 수주물량을 바탕으로 수출이 회복세로 전환될 전망이며, 자동차도 친환경차와 신차효과로 선진국으로의 수출 증가세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

- 수입은 국내 경기 둔화와 반도체 수출 부진 등에 따른 설비투자 감소로 자본재 등에서 감소세가 이어질 것이나, 하반기에는 전년도 수준에 예상

- 수입보다 수출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8년(697억 달러)보다 크게 줄어든 421억 달러 정도가 예상

<표 1-14> 2019년 하반기 수출입 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 억 달러

	2018년			2019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통관기준 수출	2,967 (6.3)	3,082 (4.6)	6,049 (5.4)	2,744 (-7.5)	2,948 (-4.3)	5,692 (-5.9)
통관기준 수입	2,656 (13.4)	2,696 (10.6)	5,352 (11.9)	2,559 (-3.6)	2,712 (0.6)	5,271 (-1.5)
무역수지	311	386	697	185	236	421

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II. 13대 주력산업 전망

1. 2019년 상반기 동향

□ 수출 : 상반기 IT산업과 소재산업 수출 부진으로 큰 폭 하락

- 상반기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제품단가 하락, 글로벌 경기 약세 및 경쟁 심화 등으로 전년동기비 8.6% 감소 기록
 -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디스플레이, 정유, 석유 화학 등 주력제품의 단가 하락세가 수출 감소를 견인
 - 반면 이차전지 수출만이 성장을 유지한 가운데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음식료 등은 소폭 신장
- **(기계산업군)** 기계산업군은 전년 부진했던 자동차와 조선의 수출실적이 개선되면서 전년동기비 2.4% 증가세로 전환
 - 자동차는 전년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미국 등 주요시장에서 SUV, 친환경차 등 전략차종의 수요확대로 수출 증가 시현
 - 상반기 조선 수출은 2018년 1~2월 고가의 해양플랜트가 인도에 따른 기저효과로 대폭 감소했고, 3월 이후 선박 인도 증가로 전년동기비 0.4% 증가세 전환
 - 일반기계는 미국, 인도, 중국 등의 설비 및 건설투자 확대로 호조를 보였으나, 전년동기의 높은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로 소폭 상승
 - * 미국은 2018년 법인세 감세로 기업투자 및 인프라 투자 지속
 - * 중국은 세계경기 둔화, 미·중 분쟁,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대응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면서 인프라 건설 등 투자사업 확대
 - * 인도는 4월 총선 재집권 및 기아자동차 현지 생산공장 신규설비 투

자 등이 기계수출 확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소재산업군)** 상반기 소재산업 수출은 단가 하락, 글로벌 경쟁 심화, 수입규제 심화로 전년동기비 6.2% 감소
 - 상반기 철강 수출은 주요국의 자국산 철강공급 확대와 미국·EU 등의 수입규제 확산으로 전년동기비 3.7% 감소
 - 석유제품은 아시아 주요 경쟁국 및 수출 대상국의 정제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확대와 수출단가 하락으로 5.2% 수출 감소
 - 석유화학 역시 수출단가 하락세 장기화, 미국산 에탄계열 제품의 아시아 시장 유입량 증가로 역대 공급과잉이 심화되며 8.9% 감소 기록
 - 섬유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세계 섬유·의류 수요 위축, 개도국향 의류용 섬유소재 수출 부진으로 5.8% 감소세 시현
- **(IT제조업군)** 이차전지가 높은 수출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보통신기기 등 주력 IT제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상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비 18.7% 감소로 부진
 -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최고점 대비 약 50% 정도 하락함에 따라 전년동기비 20.6% 감소하며 실적 악화
 -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생산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패널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스마트폰의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면서 전년동기비 9.8% 감소
 - 정보통신기기의 상반기 수출은 신규 5G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부품의 해외 현지조달 확대와 SSD 수출단가 하락,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28.2% 감소
 - 가전 수출은 대형세탁기, 대형냉장고 등 프리미엄 가전과 카스테레오

등 음향기기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4.6%로 감소세 완화

- 이차전지 수출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설치 확산 등에 따른 리튬이온축전지의 수출 호조로 13.8% 고성장 지속

○ 음식료 수출은 중국향 조제분유 및 면류 수출회복 및 신흥시장에서 커피 조제품 등 한국산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 호조 지속으로 1.7% 확대

□ 생산 : 수출 및 내수 위축으로 주력업종의 성장세 부진 현저

○ 주력산업은 수출 부진, 완제품의 해외생산 확대, 소재부품의 현지조달 확대(→소재부품 수출 둔화), 완제품 수입 증가(→내수 확대를 수입 증가로 대체) 등으로 전반적인 생산 부진

- 수출감소가 컸던 IT산업의 생산 부진이 현저한 가운데, 수출실적이 양호한 시스템산업군의 생산이 소폭 증가세 시현

○ (기계산업군) 수출 확대(2.4%)와 수주 회복기 조건의 생산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비 증가세 시현

- 자동차 생산은 외자계 완성차업체의 부분파업 지속과 재고조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차 판매 부진과 수출 호조 영향으로 1.1% 증가

- 조선 생산은 2017년 이후 수주한 탱커, 컨테이너선 및 2014년 이후 수주한 LNG운반선 등을 건조하면서 4.4% 증가 전환

- 일반기계는 반도체 등 주요 수요산업의 설비투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에 힘입어 1.8% 증가

○ (소재산업군) 정유 생산이 증가한 데 반해, 내수 및 수출 부진으로 철강과 섬유 생산이 감소하는 등 대체로 부진

- 상반기 석유제품 생산은 '17년~'18년의 대규모 고도화설비 투자가 완

료되고 수출물량이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비 4.3% 확대

- 철강 생산은 봉형강류, 판재류 등 수요 증가가 수입으로 대체되고, 강관 등 수출감소로 전년동기비 2.3% 감소

- 상반기 석유화학 생산은 내수 부진 및 제품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업스트림 제품을 중심으로 마진폭이 유지되며 0.3%의 보합세 유지

- 섬유는 내수 부진과 더불어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하고, 수입제품의 국내 생산 대체가 가속화되면서 3.1% 감소세

○ (IT제조업군) 이차전지를 제외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보통신기기 등 주력 IT산업의 수출 부진으로 국내 생산이 대폭 감소

- 상반기 반도체 생산은 수출이 부진하고 설비투자 및 가동률 조정에 따른 생산 물량 조정으로 전년동기비 17.2% 감소

- 디스플레이 생산은 글로벌 세트 수요 감소와 패널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약화로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전년동기비 9.4% 감소

- 정보통신기기 생산은 스마트폰의 해외생산 비중이 91% 이상으로 확대된 가운데, 휴대폰 부품의 해외 현지조달 확대, SSD 등 컴퓨터 주변기기의 수출 부진으로 14.4% 감소

- 가전 생산은 수출감소 영향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고가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내수활성화 및 수출 증가 등으로 감소폭이 -0.2%로 완화

- 이차전지는 세계 완성차업체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확대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비 10.7% 증가

□ 내수 : 비IT산업의 내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IT산업은 신산업 및 프리미엄 제품 수요확대로 양호한 실적 유지

○ **(기계산업군)** 상반기 자동차 내수가 전년동기비 감소폭이 확대되고 일반기계는 감소로 전환하면서 부진세 심화

- 자동차 내수는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대형 SUV 등 신모델이 시장에 본격 투입되는 등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수입차의 공급물량이 줄어들면서 전년동기비 2.9% 감소

· 보조금 축소에도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판매는 큰 폭의 증가세 기록

- 일반기계 내수는 수요산업인 특수산업용 기계류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 산업의 설비투자 위축으로 전년동기비 0.9% 감소

○ **(소재산업군)** 철강을 제외한 정유, 석유화학, 섬유산업의 내수는 수요산업의 업황 및 소비 위축으로 전반적으로 부진

- 상반기 정유 내수는 휘발유 및 경유의 소비는 다소 늘었으나, 석유화학 제품 생산용 나프타(4.0%) 및 선박용 병커C유(-27.5%) 수요 위축으로 전년동기비 0.6% 감소

- 석유화학 내수는 IT산업의 업황이 부진하며 전년동기비 1.5% 감소했으나 자동차, 이차전지 수요가 증가하며 큰 폭의 하락세를 방어

- 섬유 내수는 소비가 점차 둔화하고 국내 생산활동이 위축되면서 1.1% 감소

- 상반기 철강은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의 위축, 주요 수요산업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늘어나면서 명목소비가 전년동기비 2.1% 증가

○ **(IT제조업군)** IT산업 내수는 신산업 및 프리미엄 제품 수요확대로 양호한 실적 유지

- 이차전지 내수는 에너지저장시스템의 설치 수요는 줄었으나, 국내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중대형 이차전지 수요가 늘면서 3.9% 증가

- 가전은 미세먼지 대응 공기청정기, 건조기 등 건강가전 수요 급증과 소비 트렌드 변화, 프리미엄 TV 판매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비 2.9% 증가

- 정보통신기기 내수는 스마트폰 및 PC시장 포화에도 불구하고 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 프리미엄 노트북PC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비 1.5% 증가

- 반도체 내수는 IoT, AI,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 부문의 수요확대로 수입이 증가하였고, 수출 부진에 따른 생산자 재고 누적으로 9.7% 증가

- 디스플레이는 OLED TV, QLED TV 등 프리미엄 TV시장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반 TV, 스마트폰 시장의 내수 둔화로 전년동기비 9.3% 감소

○ 음식료 내수는 가격 인상 효과 및 신제품 출시 기조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1.6% 늘어나면서 성장세를 지속

□ **수입 : 단가 하락 및 비IT산업의 수요 감소로 전년동기비 0.6% 감소**

○ **(기계산업군)** 자동차 및 일반기계 수입이 부진하여 상반기 기계산업군 수입은 전년동기비 4.6% 감소

- 자동차는 내수를 전인하던 수입차 판매가 BMW 연쇄 화재사건, 미세먼지 배출로 디젤차 구매 기피, 유럽의 배출가스 인증이 국제표준 배출가스 실험방식(WLTP)으로 변경된 이후 인증절차 지연 등의 영향으로 6.6% 감소

- 일반기계 수입은 반도체 설비투자가 줄어들면서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이 감소하여 전년동기비 4.7% 감소

- 조선은 대일 탱커 수입과 대중 소형 화물선 수입, LNG운반선과 같은 고기술선박의 생산에 따른 기자재 수입으로 10.2%의 높은 증가세

○ **(소제산업군)** 소제산업군 수입은 정유 및 석유화학 제품의 수입단가 하락 영향으로 2.6% 감소

- 정유 수입은 단가가 하락하고 수입 비중이 높은 나프타 및 벙커C유 등 석유제품의 수입물량 감소로 전년동기비 17.5% 감소하였고, 석유화학은 수입가격 하락으로 3.0% 감소

- 섬유는 내수 부진 및 국내 섬유 생산 활동 부진으로 증가폭이 둔화하였으나, 해외생산 제품의 역수입 확대, 수입물량 확대 등으로 3.3% 수입 증가세 유지

- 철강 수입은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 회복, 원가인상에 따른 국내 철강가격 인상 여파 등의 요인으로 전년동기비 7.0% 확대

○ **(IT제조업군)**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입증가세를 보여 IT제조업군 수입은 전년동기비 3.4% 증가

- 이차전지 수입은 중국 주요 이차전지 제조업체들의 높은 가격경쟁력 및 빠른 기술경쟁력 축척에 힘입어 이차전지 부분품 및 완제품 수입이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비 10.6% 증가

- 가전은 해외 프리미엄 제품 수입은 둔화되었으나, 가성비를 갖춘 중국 제품의 수입 및 해외 생산제품의 역수입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비 5.6% 증가

- 상반기 반도체 수입은 국내경기 위축으로 신산업 연구개발 투자 축소로 자동차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등 수요가 줄어들면서 5.4% 증가로 완화

- 정보통신기기는 국내 5G 상용서비스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장비 등 유무선 통신장비 수입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외산 5G폰 부재로 스마트폰 수입이 줄어들면서 0.1% 소폭 감소

- 디스플레이는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해외생산 물량 유입이 줄어들면서 1.0% 소폭 감소

○ 음식료는 반려동물산업 확대에 따른 사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맥주 수입이 감소추세로 전환되면서 전년동기비 1.4% 증가

2. 2019년 하반기 주요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 **하반기 미·중 통상분쟁 지속,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수출단가 인하,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수출여건 악화 지속**

○ **(미·중 통상분쟁)** 미·중 통상분쟁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 중국 화웨이 사태로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IT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섬유, 음식료는 경기 둔화 및 수요 위축에 따른 간접적인 파급효과 예상

- 반도체는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시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주요 수요산업의 위축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회복이 부진할 전망

· 중국의 첨단제품 및 서버업체들과 글로벌 데이터센터의 투자가 지연되어 반도체 경기회복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 또한, 화웨이는 SK하이닉스 매출의 12%, 삼성전자 매출의 3%를 차지하는 대형 수요기업으로, 화웨이 사태가 본격화 될 경우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 악영향 예상

· 미국 제재로 마이크론이 화웨이에 D램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우리 기업 제품에 대한 대체효과도 일부 기대되나, 화웨이의 생산 축소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

- 디스플레이의 경우 최대 수출국인 중국 IT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시 부품인 디스플레이의 수요 감소가 예상되며, 중국내 애플의 점유율 감소는 국내 디스플레이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다만 미국의 화웨이 규제는 단기적으로 화웨이 스마트폰 수요 둔화와 국내 하이엔드급 스마트폰의 판매 증대로 이어지면서 국내 OLED 수요 확대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 통신기기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지속시, 국내산업에 긍정 및 부정적 영향이 상존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반사이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
 - (긍정적 영향) 미국의 제재²⁾로 화웨이는 자사 스마트폰 개발 및 생산 차질로 주요 시장에서 입지가 약화되는 반면, 삼성, LG전자, 애플, 샤오미 등 경쟁업체들은 반사이익 기대, 화웨이의 5G 통신장비의 세계 시장 지출 제약으로 삼성전자 등 국내업체의 시장 확대 기회
 - (부정적 영향)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 스마트폰의 글로벌 입지가 축소되고 중국내 애플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될 경우, 규모는 작지만 화웨이와 애플향 국내부품 수출감소 전망
- 조선은 미·중 해상 물동량이 감소하는 반면, 미·아세안 물동량은 증가하여 항로간 운임변동, 경쟁 변화에 따른 불안요인 상존
- 석유화학은 미국의 중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줄어들면 핵심 중간재로 사용되는 국산 화학제품의 대중 수출 감소 우려
- 자동차와 섬유는 미국 및 중국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 위축, 음식료는 중국의 경기 침체로 우리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수요 감소 가능
- 반면 일반기계는 미국 수출용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국내외 기업들의 생산거점 이전에 따른 설비투자가 늘어나면서 긍정적 효과 기대
-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소비재를 포함한 최종재 수요 부진 및 소재부품 수요의 동반 위축으로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 예상
 - 주요 수출국의 자동차, 의류, 가전, 음식료 등 소비재 수요 성장세가 둔화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섬유소재, 정유, 석유화학 등 소재부품과 일반기계의 동반 수출 부진 야기

2) 미국 등 주요기업들의 화웨이 스마트폰 및 통신장비에 들어가는 핵심부품과 SW(AP, D램, 통신 모듈, 안드로이드 OS, 구글의 주요 어플리케이션 등) 거래를 중단

- 조선은 해상 물동량 증가율이 낮아지는 등 수출에 부정적 영향
- **(중국 성장세 둔화)** 중국 성장세 둔화로 대중 수출비중이 높은 자동차, 섬유, 반도체 수출에 부정적 영향 예상
 - 자동차는 수요가 감소하고, 경쟁력이 강화된 중국 로컬업체들과 외자 합작 업체들간의 경쟁 심화, 국내 완성차업체의 현지 공장 가동률 하락과 중국내 구조조정 수행으로 국내부품 수요 감소 예상
 - 섬유는 소비 둔화에 따른 의류 수출 및 의류용 섬유 소재 수출 부진 전망
 - 중국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중국 로컬기업의 반도체 수요 감소 예상

<표 II-1> 글로벌 여건 변화가 13대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호무역 강화		경제성장률 둔화			제품 단가	글로벌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 과잉
	미·중 통상분쟁	미·중 제외	세계	중국	개도국			
자동차	×		×	×		○	×	
조선	×		×					×
일반기계	○		×					
철강		×						
정유			×			xx	xx	
석유화학	×		×					×
섬유	×		xx	×	×	×	×	
가전			×			○	xx	
정보통신기기	○					xx	×	
반도체	xx		×	×	×	xx		
디스플레이	×		×				xx	
이차전지							xx	
음식료	×	×	×	×	×	○		

주 : 매우 긍정적 ◎, 긍정적 ○, 부정적 ×, 매우 부정적 ××

○ **(제품 단가)** 반도체, 정보통신기기, 정유, 섬유에서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반면, 자동차·가전·음식료는 제품 고급화·프리미엄화에 따른 가격 인상으로 긍정적 영향 전망

- 반도체는 하반기에 메모리반도체의 단가 하락세가 계속되겠지만, 인텔과 AMD의 CPU 신제품 공급, 노트북, 스마트폰, 웨어러블기기 등 첨단기기 수요 회복으로 단가 하락폭은 축소 전망

- 정보통신기기는 '18년 하반기부터 세계 서버시장이 위축되고 낸드플래시 반도체 단가가 하락하면서 국내 SSD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미·중 통상마찰이 장기화될 경우 SSD 수출회복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

- 정유는 글로벌 공급확대로 가격 전가율이 하락하면서 제품 단가의 상승이 제한되고, 섬유 역시 가격경쟁 심화 및 온라인거래 활성화 등으로 단가 인상이 제한적

○ **(글로벌 경쟁 심화)** 소재산업과 반도체를 제외한 IT산업은 중국의 공격적인 설비증설 및 경쟁력 제고로 경쟁 심화에 따른 수출 부진 우려

- 정유는 아시아 주요 경쟁국 및 수출 대상국의 정제설비 증설로 인해 공급물량이 증가하며 경쟁이 심화하고 수출물량 확대가 제한

- 가전은 중국기업의 성장으로 프리미엄 가전에서도 중국기업과의 경쟁 심화

· 중국 TV업체의 글로벌 점유율 추이('17년 → '18년, 수량기준) : TCL(7.1→8.0%), 하이센스(6.1→7.2%), 샤오미(0.4→4.3%)

- 정보통신기기는 중국업체의 신흥시장 진출 확대로 경쟁이 심화되고, AI폰, 폴더블폰 등 신산업분야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디스플레이는 중국이 LCD 생산 능력에서 세계 1위, OLED 생산 능력은 세계 2위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중국의 OLED 생산수율 상승으로 인한 경쟁 심화가 이어질 전망

- 이차전지는 중국의 공격적인 물량 확대 및 빠른 기술 추격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

○ **(업종별 여건변화)** 하반기 대외여건 불확실 및 하방 위협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는 기획 요인 상존

- 조선산업의 국제 환경규제 강화³⁾로 노후 선박의 조기 폐선 및 대체발주 확대, 친환경 기자재 등 시장 확대 기대

- 일반기계는 인도 모디 총리의 재집권으로 인프라 확충 기조가 유지되면서 국내 기계 수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정보통신기기는 2019년 4월부터 한국과 미국이 5G 상용화를 시작하였으며 하반기부터 주요국들의 5G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으로 세계 통신기기 시장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디스플레이는 폴더블, 롤러블 등 프리미엄 신제품 수요 증가로 수출에 긍정적 효과 예상

- 이차전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ESS 화재사고 원인 발표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대책이 발표(2019.6.11)되어 상반기 침체되었던 ESS 내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하반기 국내 주요 경제지표의 부진, 산업 구조조정, 국내 생산기반 약화, 노동시장 정책 변화 등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 예상**

○ **(국내 경기 부진)** 하반기 민간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 등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국내 경기 부진으로 대부분의 주력산업에서 업황 위축 우려

3) - 2019년 9월 BWMS(밸러스트수처리장치) 의무장착 규정이 시행되고, 2020년부터는 SOx 규제도 시행될 예정
 - 2019년 5월 IMO(국제해사기구) MEPC(해양환경보호위원회) 74차 회의에서 일부 선종에 대한 EED(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Phase 3의 조기 적용에 대한 보고서가 승인됐고 2020년 채택될 가능성
 - 국제해운 Transportwork 당 평균 CO2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최소 40% 감축, 2050년까지 70% 개선 목표를 유지

-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및 가계소득 감소는 일차적으로 자동차, 의류 등 소비재의 민간소비 위축 요인으로 작용
- 일반기계는 수요산업의 설비투자 둔화로 자동차,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용 국내 수주 감소
- 전통적 SOC분야 예산감소 및 내수 침체로 건설투자가 둔화되면서 중대형급 건설기계 수요 감소 유발
- 반도체는 민간소비 둔화로 인한 수요산업의 위축으로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표 II-2> 국내 여건 변화 전망 및 영향 평가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			산업 구조조정	국내 생산기반 (해외생산확대등)	노동시장 정책 변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민간소비 둔화	설비투자 둔화	건설투자 둔화			
자동차	×				×	×
조선						×
일반기계		×	×			×
철강					×	
정유						
석유화학	×					
섬유		xx			×	×
가전				○	×	×
정보통신기기					xx	
반도체	×	×			○	
디스플레이				×	×	
이차전지					×	
음식료		×			×	

주: 매우 긍정적 ○, 긍정적 ○, 중립 □, 부정적 ×, 매우 부정적 xx

- **(산업 구조조정)**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은 제품 고급화·프리미엄화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가전)과 부정적인 영향(디스플레이)이 업종에 따라 상이
 - 가전은 스마트홈 확산으로 가전산업의 스마트화와 서비스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글로벌 및 국내 가전 기업의 성장 기대
 - 스마트화는 제품경쟁력을 갖춘 국내기업의 성장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전사 외에도 플랫폼, 통신, 건설 등 타업종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구조재편이 진행
 - 디스플레이는 LCD 라인의 OLED로의 전환 과정에서 단기적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
 - 삼성 디스플레이는 당정의 LCD 8세대 라인을 QD-OLED로 전환하여 2020년 하반기 내지 2021년에 양산예정이며, LCD 수익성 악화에 따른 추가적인 라인 전환 가능성이 상존
- **(국내 생산기반·해외투자)** 해외투자가 확대되면서 조선, 일반기계, 화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국내 생산기반 약화, 수출감소, 수입 증대 등 생산에의 부정적 영향 예상
 - 자동차는 외자계 업체의 생산전략 변화로 국내 생산 물량이 감소하는 반면, 하반기 인도에서 기아차 생산공장이 신규 가동이 예정되어 국내 부품 수요 증가 예상되는 등 상반된 효과가 상존
 - 철강은 수입규제 대응과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생산 확대 움직임으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 예상
 - 섬유 및 가전은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투자가 계속 진행될 것이 예상되며, 국내 생산 물량의 해외 선회는 불가피
 - 정보통신기기는 국내 휴대폰 해외생산 비중이 91%로 높아졌고, 2017년 경부터 휴대폰 부품의 해외생산과 현지조달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내 생산과 수출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

- LG전자는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국내 스마트폰 생산을 중단해 나갈 예정으로 국내 생산 및 수출에의 부정적 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
- 중국발 LCD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하락 등으로 국내업체의 LCD 생산량 조정으로 국내 LCD 생산은 지속적 감소 예상
- 음식료 산업은 기업의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이 강화되면서 직수출 비중이 줄고 관련 연관산업의 국내 생산 규모 감소를 초래할 전망
- **(노동시장 정책 변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여건 변화는 기업의 고용비용 상승 및 납기 준수 어려움 등으로 일부 산업에서 부정적 영향 초래 예상
- 자동차는 정책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비정규 인력 위주로 감축하고, 일부 업체는 생산 물량 조절로 대응
- 조선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긴급 단기 대응의 어려움이 있으며, 협력사를 통한 생산변동 확대에 관리의 복잡도 증가 및 탄력적 인력 운영의 어려움 상존
- 저숙련-저임금 노동력을 다수 필요로 하는 수리조선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

3. 2019년 하반기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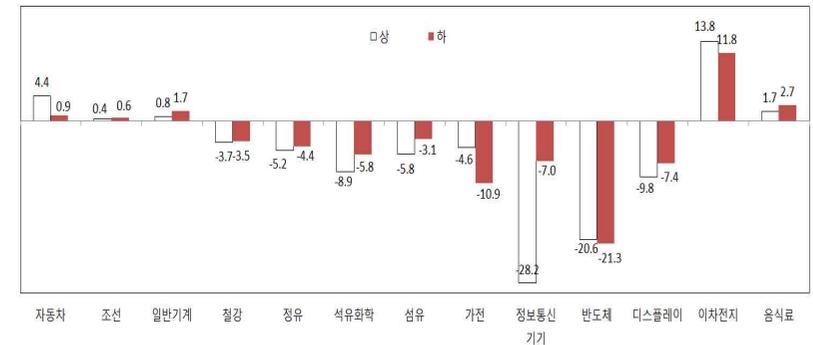
□ 수출: IT산업과 소재산업의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7.4% 감소 전망

- 13대 주력산업의 하반기 수출은 글로벌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반도체 가격 및 수출단가 약세 지속,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감소세 유지
- **(기계산업군)** 자동차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하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비 1.2%로 증가세 둔화 전망

- 하반기 자동차 수출은 SUV, 친환경차 수출이 늘면서 단가 상승이 예상되나, 글로벌 수요 감소와 외자계 업체의 수출용 위탁생산물량 계약이 완료되어 전년동기비 0.9%로 증가세 둔화 전망
- 조선 수출은 2017~2018년 수주한 다수의 가스 운반선과 MSC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이 본격적으로 인도되면서 전년동기비 0.6% 증가 예상
- 일반기계는 미국, 유럽, 인도 등에서 제조업 및 건설 부문의 투자가 확대되어 수출 증가가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 부진 및 미·중 통상분쟁 영향으로 1.7% 증가 예상

<그림 II-1> 2019년 하반기 주요 산업별 수출 증가율 전망

단위 : %, 전년동기비



주 1) 달러 표시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 **(소재산업군)** 소재산업군 수출은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하여 수출단가 상승이 제한적이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상반기 6.2% 감소에서 하반기 4.6% 감소 전망
- 철강은 동남아시아의 자국 생산능력이 확대되어 중국, 동남아시아 등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국제 철강가격(열연 가격 기준)이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어 하반기 3.5% 감소 전망

- 정유는 글로벌 수요는 둔화하겠으나, 주요 경쟁국의 대규모 정제설비 가동으로 공급이 확대되어 경쟁이 심화되고 수출단가 상승이 어려워 하반기 수출이 전년동기비 4.4% 감소 예상

- 석유화학은 미·중간 무역분쟁 장기화로 중국의 수입수요가 감소하고, 중국의 관세인상으로 미국산 제품이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경쟁이 심화되어 전년동기비 5.8% 감소 전망

- 섬유는 글로벌 섬유 수요 부진과 수출단가 인상 제약으로 전년동기비 3.1% 감소 전망

○ **(IT산업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단가 하락이 지속되어 하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비 15.7% 감소 전망

-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반도체 단가가 하반기에도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년동기비 21.3% 감소 전망

- 하반기 정보통신기기 수출은 해외생산 확대로 감소세가 지속되지만 세계 5G 시장 확대, 신규 5G폰 출시 및 SSD 단가 안정화 등에 힘입어 상반기보다 부진폭이 완화되면서 전년동기비 7.0% 감소 전망

- 디스플레이 수출은 중국의 생산 물량이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단가 하락이 예상되고, LCD의 수출부진이 지속되어 7.4% 감소 전망

- 가전 수출은 글로벌 스마트홈 시장 확산 및 제품의 프리미엄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성장 부진, 미국 셰이프가드로 인한 세탁기 수출감소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상반기 대비 부진한 10.9% 감소 예상

- 반면 하반기 이차전지 수출은 중형 이차전지 세계수요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11.8% 확대되어 상반기의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

- 국내기업들의 해외생산 공장 신·증설이 마무리되는 2022년 이후 중대형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해외생산이 본격화하고, 수출 주력품목은 차

세대 고기능제품 및 부분품 위주로 재편 전망

○ 음식료 수출은 중국 및 아시아 개도권 경기의 안정적 성장세를 바탕으로 전년동기비 2.7% 성장 예상

〈표 II-3〉 2019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 주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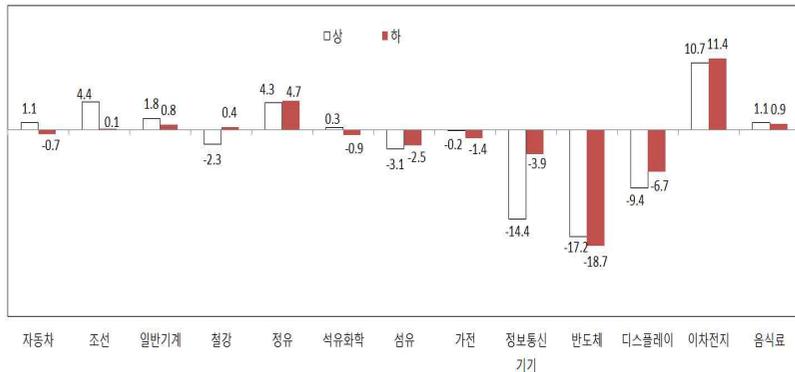
		증감률(%)		수출 증감 주요 요인
		19.상	19.하	
증가세 유지	이차전지	13.8	11.8	- 중대형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수요 증가
	자동차	4.4	0.9	- SUV, 친환경차 수출 비중 증가에 따른 단가 상승 - 글로벌 수요 감소 - 외자계업체의 수출용 위탁생산물량 계약 완료
	일반기계	0.8	1.7	- 미국, 유럽, 인도 등 제조업 및 건설투자 확대
	조선	0.4	0.6	- 2017-2018년 수주한 다수의 가스운반선과 MSC의 초대형컨테이너선이 본격적으로 인도
	음식료	1.7	2.7	- 중국 및 아시아 개도권 경기의 안정적 성장세
감소세 지속	반도체	-20.6	-21.3	- 메모리반도체 단가 하락
	가전	-4.6	-10.9	- 해외생산 확대와 글로벌 경쟁 심화
	정보통신기기	-28.2	-7.0	- 해외생산 확대 - 세계 5G 시장 확대, 신규 5G폰 출시 및 SSD 단가 안정화로 감소폭 완화 - 화웨이 제재로 국내 스마트폰과 통신장비에 소폭 단기적 반사이익 기대
	디스플레이	-9.8	-7.4	- 중국의 생산설비 안정화에 따른 생산능력 증가 - 추가적인 단가하락 - LCD 수출부진(하반기 중국 OLED 공장 가동, 애플 아이폰 신제품 디스플레이의 OLED 전환 계획)
	철강	-3.7	-3.5	- 동남아시아 시장의 자국생산능력 확대 - 국제철강가격(열연 가격 기준)의 하락세 전환
	섬유	-5.8	-3.1	- 글로벌 경기 성장세 둔화에 따른 글로벌 섬유 수요 부진 - 수출단가 인상 제약
	정유	-5.2	-4.4	- 글로벌 석유제품의 수요확대 둔화 - 주요 경쟁국의 대규모 정제설비 가동으로 인한 공급 확대 등 경쟁 심화 - 수출단가 상승 제약
	석유화학	-8.9	-5.8	- 미·중간 무역분쟁 장기화로 중국의 수입수요 감소 - 미국산 제품의 동남아시아 시장 유입으로 시장잠식

□ 생 산: 수출 감소 및 내수 위축으로 상반기의 부진 지속 전망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산업의 수출 부진에 따른 생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IT산업의 생산 증가세 둔화 및 자동차, 석유화학의 감소세 전환으로 하반기에도 생산 부진이 지속될 전망
- **(기계산업군)** 하반기 자동차 생산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조선 및 일반기계의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상반기 대비 생산 부진 전망
 - 자동차 생산은 르노삼성이 닛산으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하던 물량의 계약이 종료되고, 국내 재고가 계속 누적되어 전년동기비 0.7% 감소 예상
 - 조선은 탱커와 컨테이너선 건조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동기비 0.1% 증가 예상
 - 일반기계 생산은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수경기가 위축되면서 전년 동기비 0.8%로 증가세가 대폭 둔화될 전망

<그림 II-2> 2019년 하반기 주요 산업별 생산 증가율 전망

단위 : %, 전년동기비



주 :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소재산업군)** 철강 생산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나 석유화학 및 섬유 생산이 지속 줄어들어 하반기 생산은 부진 지속

- 철강은 자동차, 기계, 가전 등 수요산업의 생산이 부진하고, 파잉재고 및 수입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물량이 소폭 증가하여 전년동기비 0.4% 증가세 전환 전망
- 정유 생산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수출물량 확대가 어려워 전년동기비 4.7% 증가율을 유지
- 석유화학 내수는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이차전지 등 IT산업을 중심으로 수요가 다소 개선되겠지만 수출이 줄어들면서 0.9% 감소 전환
- 섬유는 지속적인 해외투자, 수출 부진 및 수입 확대로 하반기 생산이 2.5% 감소 전망

- **(IT산업군)** 이차전지를 제외한 IT산업의 생산 부진 지속

- 하반기 반도체 생산은 수출이 계속 부진하고 생산자 재고가 누적되어 18.7% 감소 전망
 -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완화를 위해 증설한 생산시설의 가동률 조정을 통해 생산량 조정
- 정보통신기기 생산은 휴대폰 및 부품의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겠지만, 내수와 수출 부진 개선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3.9%를 기록하며 상반기 대비 감소세 둔화 예상
 - 5G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LG전자의 국내 생산 중단, 베트남, 인도 등 휴대폰 부품의 해외 현지조달 확대가 이어지면서 감소 기록
- 디스플레이 생산은 LCD의 가격이 하락하고, LCD 생산라인의 OLED로의 전환으로 생산물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전년동기비 6.7% 감소

- 가전 생산은 TV 수출이 부진하고, 하반기 대형세탁기의 미국 공장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비 1.4% 감소 전망
- 하반기 이차전지 생산은 높은 수출 증가, 중대형 이차전지 중심의 R&D 투자 확대, 국내 신규 설비라인 구축 및 생산 확대로 11.4% 증가 기대
- 음식료는 내수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수출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0.9% 증가 예상

〈표 II-4〉 2019년 하반기 주력산업의 생산 변화 주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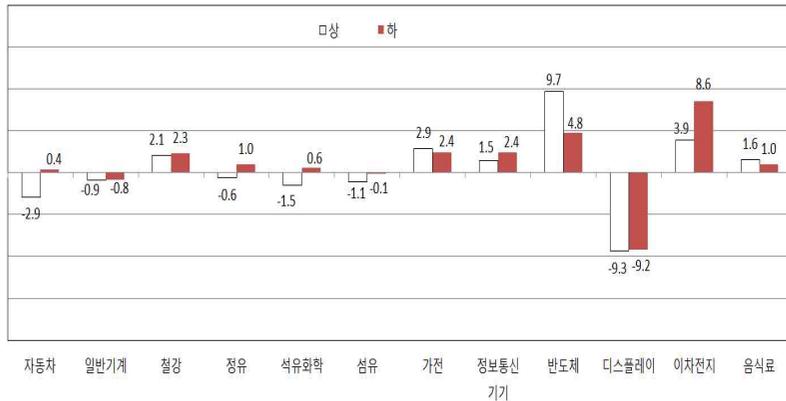
		증감률(%)		생산 증감 주요 요인
		19.상	19.하	
증가세 지속	이차전지	10.7	11.4	- 높은 수출 증가 - 국내 신규설비라인 구축 및 설비투자 확대
	조선	4.4	0.1	- 탱커와 컨테이너선 건조 증가 - LNG운반선 감소
	일반기계	1.8	0.8	- 수출 증가세 확대 - 내수경기 위축
	음식료	1.1	0.9	- 견고한 내수 - 수출 성장 기조 유지
증가세 전환	철강	-2.3	0.4	- 수출 물량의 소폭 증가 - 국내 재고의 증가 - 수입 증가
감소세 전환	자동차	1.1	-0.7	- 르노삼성의 위탁 생산 물량 계약 종료 - 국내 재고의 지속적 누적
	석유화학	0.3	-0.9	- 수출 감소 - 상반기 생산시설 정기보수 대비 재고 확보 수요 감소
감소세 지속	반도체	-17.2	-18.7	- 수출 부진 및 재고 누적 - 생산시설의 가동률 조절
	디스플레이	-9.4	-6.7	- LCD 가격하락에 따른 가동률 하락 - LCD 생산라인의 OLED 전환에 따른 생산물량 감소
	정보통신기기	-14.4	-3.9	- 휴대폰 및 부품의 해외생산 확대 - 내수와 수출 부진 개선으로 생산 감소 완화
	가전	-0.2	-1.4	- TV 수출 부진 - 하반기 대형세탁기의 미국 공장 생산량 증가
	섬유	-3.1	-2.5	- 지속적인 해외투자로 인한 생산기반 이전 - 수출 부진 및 수입 확대

□ 내수 : 비IT산업의 내수 증가세가 소폭 개선되나, IT산업은 반도체 내수의 성장세 둔화로 상반기 대비 소폭 둔화 전망

- (기계산업군) 하반기 내수는 자동차 내수가 증가 전환하고 일반기계의 내수 감소폭이 둔화하며 상반기 대비 소폭 개선이 기대
 - 하반기 자동차 내수는 12월까지 개소세 인하 연장, 대형 SUV 등 신모델 판매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0.4% 증가세 전환 예상
 - 하반기 일반기계 내수는 수요산업 부진으로 내수 기계류 수주가 줄어들면서 감소하겠으나, 수출 증가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0.8% 감소 전망
- (소재산업군) 철강 내수가 증가하고, 정유 및 석유화학의 내수가 증가세로 개선되면서 상반기 대비 소폭 개선 기대
 - 철강 내수는 자동차, 기계 등 수요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건설투자 감소폭이 크게 둔화하고 수입증가의 영향으로 2.3% 증가 전망
 - 정유 내수는 하반기 정부의 경기부양책 확대 및 전년 기저효과로 소폭 증가세 전환 전망
 - 하반기 석유화학 내수는 IT산업의 업황이 다소 개선되며 전년동기비 0.6% 증가세 전환 예상
 - 섬유 내수는 하반기 민간소비가 다소 개선되고 수입 확대가 이어지면서 전년동기비 0.1% 감소하여 상반기 대비 감소폭 둔화가 예상
- (IT산업군) 반도체 및 가전의 내수 증가세가 둔화하고 디스플레이 내수가 계속 부진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 전망
 - 하반기 이차전지 내수는 ESS 화재사고 원인 발표 이후 대형 이차전지의 신뢰성이 회복되고,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확산 정책이 강화되면서 전년동기비 8.6% 증가 기대

- 하반기 정보통신기기 내수는 5G 서비스 수요확대와 전략 스마트폰 등 신제품 출시 효과가 작용하면서 전년동기비 2.4% 증가 예상
 - 하반기 가전 내수는 환경변화 및 소비트렌드 변화로 에어컨 등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비 2.4% 증가 전망
 - 반도체 내수는 신산업 대응 제품들의 수요와 5G 통신 관련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동기비 4.8% 확대가 기대되나 상반기 대비 증가율은 큰 폭으로 둔화될 전망
 - 디스플레이는 경기둔화에 따른 IT 완제품의 수요 감소, 국내 생산 위축, 스마트폰의 수요 부진과 LG 휴대폰 국내 생산 중단 결정으로 전년동기비 -9.2%로 큰 폭의 생산 감소세 전망
- 하반기 음식료산업 내수는 제품의 프리미엄화 지속, HMR* 등 신제품 (예시: Meal Kit 등) 출시, 고급 기호식품에 대한 수입 수요가 유지되면서 전년동기비 1.0% 증가 예상

<그림 II-3> 2019년 하반기 주요 산업별 내수 증가율 전망
단위 : %,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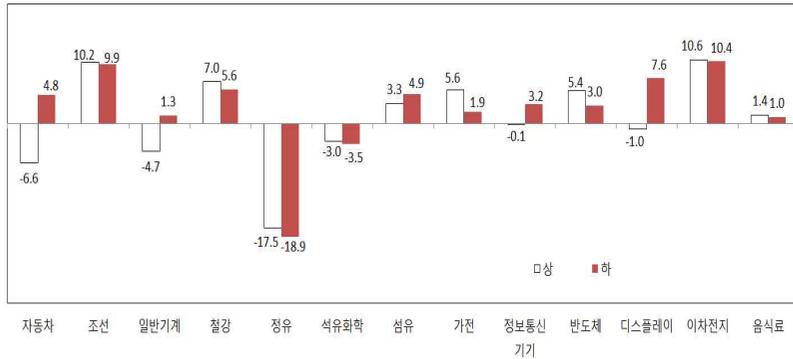
주 :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 정유는 석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 수입 : 기계산업과 IT산업의 수입 확대로 0.8% 증가세 전환 예상

- (기계산업군) 하반기 자동차, 조선 등 수송기기 부문의 수입이 확대되고, 일반기계 수요확대로 수입은 전년동기비 3.0% 확대 예상
- 자동차 수입은 가격 인하와 다양한 신모델이 출시되고, 상반기의 공급 부족 물량이 하반기에 해소되는 한편, 수입차의 AS 부품과 안전·편의 관련 첨단기능 구현 수입부품의 수요가 늘면서 전년동기비 4.8% 증가 전망
 - 조선은 고기술 선박의 기자재 수입과 중국으로부터의 선박 수입이 늘면서 전년동기비 9.9% 증가 전망
 - 일반기계 수입은 하반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감소세가 완화되고, 자동차 생산이 소폭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비 1.3% 증가 예상
- (소재산업군) 정유 수입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하반기 소재산업의 수입은 전년동기비 3.5% 감소
- 하반기 철강 수입은 국제 철강가격이 하락하고, 국내 범용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동시에, 미국·EU 시장의 규제를 회피하려는 물량이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전년동기비 5.6% 증가 예상
 - 정유 수입은 산업용 석유제품의 내수가 계속 부진하고 수입단가가 하락하면서 전년동기비 18.9% 감소 전망
 - 석유화학제품 수입은 수입단가 하락으로 전년동기비 3.5% 감소 예상
 - 섬유 수입은 해외생산 의류의 역수입 지속 확대, 중저가 섬유소재 수입 확대, 중저가 섬유제품의 수요 증가로 전년동기비 4.9% 증가 예상

<그림 II-4> 2019년 하반기 주요 산업별 수입증가율 전망

단위 : %, 전년동기비



주 1) 달러 표시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 **(IT산업군)** 하반기 IT산업 수입은 중저가 중국산 제품 및 부품 수입이 증가하고, 시스템반도체 및 5G 등 신산업 대응 제품의 수입이 늘면서 전년동기비 3.4% 증가 예상
- 이차전지 수입은 저가 중국산 부분품 및 완제품 수입이 계속 증가하여 전년동기비 10.4% 증가 전망
- 반도체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자동차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센서류 등 국내 제작이 어려운 시스템반도체 수요 증가로 전년동기비 3.0% 증가 전망
- 디스플레이는 패널 사이즈별 생산공정의 차이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여 수입 수요가 7.6% 증가세 전환 예상
- 가전은 내수 성장 둔화로 수입이 다소 둔화하고, 국내 가전사의 제품경쟁력과 디자인 개선으로 해외 프리미엄 가전의 수입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전년동기비 1.9% 증가 예상

- 정보통신기기는 5G 인프라망 구축을 위한 통신장비와 완제품 제조용 부품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전년동기비 3.2% 증가 전망
- 4분기 애플의 신제품 출시와 중국업체들의 국내 진출 확대 계획으로 하반기에 외산 스마트폰 수입이 상반기보다 증가할 전망

- 음식료 수입은 고급 기호식품에 대한 수입수요와 반려동물용 사료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주요 원자재의 국제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전년동기비 1.0% 증가 예상

4. 정책적 시사점

□ 소비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

- 투자 감소 및 소비 둔화 추이로 낮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므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내수의 회복 여부가 매우 중요
 - 정부는 내수 회복을 통해 견고한 수요가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제조기반 강화를 통해 제조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 추진 필요
-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공정경쟁 및 혁신성장 등의 체계적인 추진과 더불어 소비 회복을 위한 강력한 내수진작 대책 필요
 - 노후차의 친환경차 개체 지원(자동차), 유가 연동형 탄력세율제로의 개편(정유), 하반기 쇼핑관광축제 체계화 및 내실화(의류),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유통기술에 투자 확대(음식료)
- 공공부문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진작 도모
 - 관공선 및 군함·해경 등의 공공 발주(조선), 사회 인프라 투자 확대(철강), 초·중등학교, 재교육 기관 등에 교육용, 훈련용 AR/VR

기기 보급 프로그램 마련(디스플레이)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활성화 지원

- 제조 스마트화 지원으로 제조 혁신 및 시장 창출 역량 강화(일반 기계, 가전, 음료, 섬유), 5G 서비스 확산을 위해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지원(정보통신기기)

□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를 위한 고부가 유망 신산업 성장 촉진

○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확대를 위해 고부가 및 유망 신산업 부문으로의 충분한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필요

- 차종 고급화·첨단화(자동차), 자율운항선박 및 전기(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조선) 첨단제조로봇(일반기계) 등 기계산업의 첨단화 지원
- 헬스케어/항공우주/친환경 신소재(석유화학, 섬유) 등 소재 고부가 가치화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투자(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시스템반도체 및 차세대반도체(반도체), IoT가전 및 스마트가전(가전) 등

□ 산업의 강건성 제고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 산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전후방산업간 유기적 네트워크 강화 및 혁신생태계 조성

- 스마트홈 플랫폼 또는 표준기술 지원(가전), 5G 단말·부품·장비 등 산업생태계 역량 강화(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장비산업 육성 발전(반도체) 등

- 환경규정 강화 대응 기자재 및 중소·수리 조선사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조선), 최종재 가치사슬 내 수요산업과 협력 체계 구축(섬유, 석유화학), 해외 완성차업체 등 글로벌 수요기업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이차전지) 등

□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 주력 수출 시장포화와 경쟁 심화에 따른 성장한계 극복을 위해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국내 부품업체들의 납품선 다변화와 해외 OEM과의 협업 모색(자동차), 신남방 및 신북방 등 Post-China 시장에 대한 신시장 개척 활동 강화 및 판매 네트워크 구축 지원(철강, 섬유, 음료, 정보통신기기)

□ 내수 활성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 국내 생산 및 내수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금융, 규제 완화 등 제반 인프라 재정비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 수입원유 및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 관세의 하향조정을 통한 원가경쟁력 강화(정유)
- 인공지능, IoT, 5G 등을 활용한 융합제품·서비스를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등 규제와 제도 정비(정보통신기기)

<표 II-5> 주력 제조업의 내수 활성화 방안

	대응 방안
자동차	- 노후차 교체 지원 등 내수진작 정책
조선	- 국내 주요 항만의 배출규제해역(ECA) 설정 및 국적선의 친환경선박으로의 대체 발주 - 관공선 및 군함·해경 등의 공공 발주 - 친환경 설비의 Retrofit을 위한 해운사기자재사수리조선사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일반기계	- 스마트공장사업과 연계한 기계산업 고도화 - 첨단 기계분야에 대한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
철강	- 사회 인프라 투자 확대 - 수요산업 신규 프로젝트 발굴 및 투자 지원 - 수입모니터링, 산업피해 조사·분석, 수입규제 대응방안 마련
정유	- 유틸리티의 유가 연동형 탄력세율제로의 개편을 통한 내수 확대 - 석유제품 유통시장 구조의 효율화를 통한 소비 확대 - 수입원유 및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 하향 조정을 통한 원가경쟁력 강화
석유화학	- 원료다변화를 통한 원가 불확실성 완화 - 사업다각화(전기전자, 이차전지, 태양광 등) 전략 추진
섬유	-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쇼핑관광축제 정례화 및 체계화 - 제조 스마트화 지원으로 제조 혁신
가전	- 서비스 분야와 결합된 가전 시장 활성화 지원 - 제조스마트화로 국내 가전사의 시장 창출 역량 강화
정보통신기기	- 5G 서비스 확산을 위해 5G 전국망 조기 구축 지원 - 5G기반의 핵심서비스를 발굴하여 활성화 - 개인정보이슈 등 5G 신기술·서비스 촉진 위한 제도·규제 정비
반도체	- 완성품 업체와 협력하여 신제품·신시장을 개척 - 시율의존도가 높은 스텝반도체 기술개발 지원
디스플레이	- 초중등 학교, 재교육 기관 등에 교육용, 훈련용 AR/VR기기 보급 프로그램 마련 - 센서 내장형(UPS)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의 시범사업 추진
이차전지	- ESS 화재사고 원인 발표 이후 후속 대책 강화 - 대규모 에너지저장시스템 실증·시범사업의 지속적 확대
음식료	- 식품의 품질과 안전관리를 위한 제조·유통의 스마트화 촉진 - 온라인 유통 활성화를 위한 retail tech에 대한 투자 확대

<표 II-6> 주력 제조업의 수출 활성화 방안

	대응 방안
자동차	- 수출차종의 고급화 및 첨단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 국내 부품업체들의 납품선 다변화와 해외 OEM과의 협업 모색
조선	- 범용선박 및 중소조선사 원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 K야드 기술개발 -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자율운항선박·가스연료 및 대체연료 추진선박·전기(수소 연료전지)추진선박 등의 연구개발 및 실증 - 수리-개조 등 선박의 전주기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선사-기자재사-수리조선사 등의 사업모델 협력
일반기계	- 주요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품목 선정 및 제품 고도화 지원 - 현지 유통망 확보, 수리 및 유지보수, 부품조달, 서비스화 지원시스템 구축
철강	-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 연계 판매 네트워크 구축
정유	- 원유 도입처 다변화, 고도화 설비투자 확대, 설비운영 최적화로 원가경쟁력 강화 - 수출시장 다변화 및 해외 저장·유통·판매 인프라 구축 - 친환경 및 고품질 석유제품의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석유화학	- 중국발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제품 차별화(고부가가치화) - 플라스틱 규제 정책 대응 친환경 제품,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 투자
섬유	- 역직구 활성화 지원 - 한류 연계 신홍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가전	- 스마트홈 시장 확대에 대비한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강화 - 스마트가전 협력 생태계 구축 및 플랫폼 활성화 지원
정보통신기기	- 인도, 중남미 등 중소기업체들의 신시장 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 폴더블폰, AI 융합단말 등 Post-스마트기기 및 핵심부품 개발 지원
반도체	- 메모리반도체 시장 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술경쟁력 강화 - 시장에서 요구되는 제품 적기 제공, 완성품 제조업체들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디스플레이	- 융복합 디스플레이 응용기기 개발의 시범/공모 사업 추진 - 융복합 디스플레이 생산 인프라 구축
이차전지	- 해외 완성차 업체 등 글로벌 수요기업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 해외에서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정용 ESS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음식료	- 수출지역 맞춤형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확대 - 신남방 및 신북방 등 Post-China 시장에 대한 신시장 개척활동 강화

2019년 13대 하반기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2017	2018			2019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64,824 (-1.4)	31,865 (-4.6)	32,140 (2.2)	64,005 (-1.3)	33,262 (4.4)	32,442 (0.9)	65,704 (2.7)
조선	42,182 (23.1)	10,813 (-54.8)	10,462 (-42.7)	21,275 (-49.6)	10,852 (0.4)	10,527 (0.6)	21,380 (0.5)
일반기계	48,607 (10.1)	26,264 (8.6)	27,293 (11.7)	53,557 (10.2)	26,480 (0.8)	27,755 (1.7)	54,235 (1.3)
철강	34,211 (19.9)	16,787 (-0.5)	17,186 (-0.9)	33,973 (-0.7)	16,171 (-3.7)	16,587 (-3.5)	32,758 (-3.6)
정유	35,037 (32.4)	22,002 (34.2)	24,348 (30.6)	46,350 (32.3)	20,862 (-5.2)	23,275 (-4.4)	44,137 (-4.8)
석유화학	44,688 (23.6)	24,959 (13.2)	25,026 (10.6)	49,985 (11.9)	22,726 (-8.9)	23,562 (-5.8)	46,288 (-7.4)
섬유	13,742 (-0.5)	7,174 (4.9)	6,906 (0.0)	14,080 (2.5)	6,760 (-5.8)	6,691 (-3.1)	13,451 (-4.5)
가전	8,830 (-22.1)	3,692 (-18.4)	3,524 (-18.2)	7,216 (-18.3)	3,522 (-4.6)	3,140 (-10.9)	6,662 (-7.7)
정보통신기기	31,867 (-16.7)	14,672 (-5.0)	13,756 (-16.3)	28,428 (-10.8)	10,538 (-28.2)	12,796 (-7.0)	23,334 (-17.9)
반도체	97,952 (57.4)	61,277 (42.9)	65,449 (18.8)	126,726 (29.4)	48,629 (-20.6)	51,506 (-21.3)	100,135 (-21.0)
디스플레이	27,379 (9.0)	11,131 (-15.7)	13,548 (-4.4)	24,679 (-9.9)	10,042 (-9.8)	12,540 (-7.4)	22,582 (-8.5)
이차전지	5,950 (19.7)	3,385 (19.9)	3,840 (22.8)	7,225 (21.4)	3,851 (13.8)	4,295 (11.8)	8,146 (12.7)
음식료	4,726 (5.5)	2,533 (11.8)	2,483 (0.9)	5,016 (6.1)	2,575 (1.7)	2,550 (2.7)	5,125 (2.2)
13대 합계	459,995 (16.3)	236,554 (5.2)	245,961 (4.6)	482,515 (4.9)	216,270 (-8.6)	227,666 (-7.4)	443,937 (-8.0)

- 주 1) ()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4)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

2019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전망

단위 : %

	2017	2018			2019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천 대)	4,115 (-2.7)	2,005 (-7.3)	2,024 (3.7)	4,029 (-2.1)	2,026 (1.1)	2,010 (-0.7)	4,036 (0.2)
조선 (만 CGT)	1,057 (-14.5)	446 (-25.8)	327 (-28.4)	772 (-26.9)	465 (4.4)	327 (0.1)	792 (2.6)
일반기계 (10억원)	120,790 (19.5)	61,961 (0.3)	61,895 (4.9)	123,856 (2.5)	63,078 (1.8)	62,394 (0.8)	125,472 (1.3)
철강 (천 톤)	77,073 (3.9)	38,054 (-1.0)	37,157 (-3.9)	75,211 (-2.4)	37,170 (-2.3)	37,314 (0.4)	74,484 (-1.0)
정유 (10만배럴)	12,297 (6.2)	6,161 (3.4)	6,428 (1.4)	12,589 (2.4)	6,425 (4.3)	6,733 (4.7)	13,158 (4.5)
석유화학 (천 톤)	21,976 (4.3)	10,815 (-0.1)	10,738 (-3.7)	21,553 (-1.9)	10,846 (0.3)	10,640 (-0.9)	21,486 (-0.3)
섬유 (10억원)	78,085 (4.9)	39,470 (1.6)	38,100 (-2.9)	77,570 (-0.7)	38,250 (-3.1)	37,148 (-2.5)	75,398 (-2.8)
가전 (10억원)	28,746 (-9.1)	13,444 (-3.8)	13,835 (-6.3)	27,279 (-5.1)	13,412 (-0.2)	13,649 (-1.4)	27,061 (-0.8)
정보통신기기 (10억원)	56,147 (-5.4)	28,971 (-5.0)	26,673 (-7.7)	55,644 (-0.9)	24,803 (-14.4)	25,643 (-3.9)	50,446 (-9.3)
반도체 (10억원)	111,495 (45.5)	68,226 (42.6)	73,050 (14.8)	141,276 (26.7)	56,485 (-17.2)	59,354 (-18.7)	115,839 (-18.0)
디스플레이 (10억원)	48,952 (-1.7)	20,440 (-18.4)	21,837 (-8.7)	42,277 (-13.6)	18,510 (-9.4)	20,366 (-6.7)	38,877 (-8.0)
이차전지 (10억원)	13,107 (21.1)	7,284 (25.8)	7,446 (20.9)	14,730 (12.4)	8,064 (10.7)	8,295 (11.4)	16,359 (11.1)
음식료 (10억원)	86,755 (3.6)	43,750 (2.4)	44,500 (1.1)	88,250 (1.7)	44,210 (1.1)	44,900 (0.9)	89,110 (1.0)

- 주 1) ()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제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2019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전망

단위 : %

	2017	2018			2019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 동 차 (천 대)	1,794 (-1.8)	897 (-0.8)	907 (2.0)	1,804 (0.6)	872 (-2.9)	911 (0.4)	1,783 (-1.2)
조 선 (만 CGT)	104 (-1.0)	45 (-10.0)	32 (-40.7)	77 (-26.0)	56 (24.4)	45 (40.6)	101 (31.2)
일반기계 (10억원)	102,225 (28.7)	49,776 (-5.0)	47,935 (-3.8)	97,712 (-4.4)	49,332 (-0.9)	47,555 (-0.8)	96,887 (-0.8)
철 강 (천 톤)	56,314 (-1.3)	26,798 (-6.1)	26,911 (-3.1)	53,710 (-4.6)	27,353 (2.1)	27,529 (2.3)	54,882 (2.2)
정 유 (10만배럴)	9,401 (1.7)	4,684 (2.0)	4,651 (-3.2)	9,335 (-0.7)	4,655 (-0.6)	4,698 (1.0)	9,354 (0.2)
석유화학 (천 톤)	11,631 (3.6)	5,691 (-1.5)	5,507 (-5.9)	11,199 (-3.7)	5,603 (-1.5)	5,538 (0.6)	11,142 (-0.5)
섬 유 (10억원)	79,727 (6.0)	40,059 (3.1)	40,876 (0.0)	80,936 (1.5)	39,618 (-1.1)	40,826 (-0.1)	80,444 (-0.6)
가 전 (10억원)	26,231 (4.7)	13,418 (6.6)	13,753 (4.9)	27,171 (4.8)	13,813 (2.9)	14,082 (2.4)	27,895 (2.7)
정보통신기기 (10억원)	50,929 (18.8)	27,173 (11.1)	26,322 (-0.5)	53,495 (5.0)	27,590 (1.5)	26,951 (2.4)	54,541 (2.0)
반 도 체 (10억원)	47,303 (-1.3)	24,017 (13.5)	26,966 (3.1)	50,983 (7.8)	26,352 (9.7)	28,264 (4.8)	54,616 (7.1)
디스플레이 (10억원)	24,467 (3.9)	11,191 (-17.3)	9,914 (-9.4)	21,105 (-13.7)	10,151 (-9.3)	9,000 (-9.2)	19,151 (-9.3)
이차전지 (10억원)	7,543 (35.6)	4,440 (11.1)	4,036 (13.9)	8,476 (12.4)	4,612 (3.9)	4,382 (8.6)	8,994 (6.1)
음 식 료 (10억원)	94,892 (3.9)	47,827 (2.0)	48,887 (1.9)	96,714 (1.9)	48,579 (1.6)	49,391 (1.0)	97,970 (1.3)

주 1) ()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
도품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금액 기준.

2019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2017	2018			2019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16,475 (2.9)	9,163 (15.8)	8,353 (-2.4)	17,517 (6.3)	8,562 (-6.6)	8,752 (4.8)	17,314 (-1.2)
조 선	2,466 (-24.4)	1,269 (-2.5)	1,368 (17.5)	2,636 (6.9)	1,398 (10.2)	1,503 (9.9)	2,902 (10.0)
일반기계	30,042 (10.0)	15,190 (2.6)	14,606 (-4.2)	29,796 (-0.8)	14,475 (-4.7)	14,795 (1.3)	29,270 (-1.8)
철 강	21,885 (9.5)	11,022 (-5.9)	10,827 (6.5)	21,849 (-0.2)	11,795 (7.0)	11,431 (5.6)	23,226 (6.3)
정 유	15,118 (26)	9,967 (31.3)	11,476 (52.5)	21,443 (41.8)	8,221 (-17.5)	9,310 (-18.9)	17,531 (-18.3)
석유화학	13,774 (15.8)	7,078 (-0.5)	7,456 (11.9)	14,534 (5.5)	6,866 (-3.0)	7,198 (-3.5)	14,064 (-3.2)
섬 유	15,194 (4.7)	7,710 (12.6)	9,431 (13.0)	17,141 (12.8)	7,961 (3.3)	9,889 (4.9)	17,850 (4.1)
가 전	6,608 (16.2)	3,668 (11.0)	3,451 (4.4)	7,119 (7.7)	3,874 (5.6)	3,516 (1.9)	7,390 (3.8)
정보통신기기	27,353 (12.0)	13,001 (2.6)	13,474 (1.1)	26,475 (1.8)	12,985 (-0.1)	13,907 (3.2)	26,892 (1.6)
반도체	41,176 (12.5)	21,116 (9.6)	23,596 (7.7)	44,712 (8.6)	22,264 (5.4)	24,304 (3.0)	46,568 (4.2)
디스플레이	5,142 (69.3)	2,731 (-1.0)	2,468 (3.5)	5,199 (-0.6)	2,704 (-1.0)	2,656 (7.6)	5,360 (3.1)
이차전지	893 (26.5)	742 (87.6)	808 (62.6)	1,550 (73.6)	821 (10.6)	892 (10.4)	1,713 (10.5)
음식료	11,926 (8.9)	6,322 (7.0)	6,389 (6.2)	12,711 (6.6)	6,410 (1.4)	6,455 (1.0)	12,865 (1.2)
13대 합계	208,052 (11.6)	108,979 (6.9)	113,703 (7.1)	222,682 (4.6)	108,336 (-0.6)	114,608 (0.8)	222,945 (0.1)

주 1) ()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4) 일반기계는 사무기기(MTI 714)와 광학기기(715) 제외 기준.